

지방위기, 사회정책을 통한 극복 방안 모색

□ 일시 : 2018. 2. 27.(화) 14:00~17:00

□ 장소 : 대전세종연구원 대회의실

제5차 사회정책포럼 개최

□ 개요

- (제목) 지방위기, 사회정책을 통한 극복 방안 모색
- (목적) 지방위기 진단과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정책 방향 토론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일시 및 장소) '18. 2. 27.(화) 14:00 ~ 17:00 / 대전세종연구원 대회의실
 ※ 정부, 학계, 연구계, 민간단체 등 50명 참석 예정
- (주최 및 주관) 교육부 / 대전세종연구원·한국경제발전학회·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주요내용) ① 지방위기, 압축도시만이 살길이다
 ② 지방인재의 유출과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실태

□ 세부 일정(안)

시간	세부사항
14:00~14:10 (10)	■ 등록
14:10~14:20 (10)	■ 개회사 : 이난영 국장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 ■ 인사말 : 박재묵 원장 (대전세종연구원)
좌장: 우천식 선임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	
14:20~15:20 (60)	■ 주제 1 지방위기, 압축도시만이 살길이다 · 발표 : 마강래 교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 토론 : 안기돈 교수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정경석 박사 (대전세종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 이왕건 박사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
15:20~15:30 (10)	- 휴 식 -
15:30~16:30 (60)	■ 주제 2 지방인재의 유출과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실태 · 발표 : 류장수 교수 (부경대학교 경제학과) · 토론 : 임경수 교수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신기왕 부원장 (울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 박노동 박사 (대전세종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16:30~17:00 (30)	■ 종합토론
17:00~	■ 포럼내용 정리 및 폐회

※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차 례

◎ 주제 1 : 지방위기, 압축도시만이 살길이다

■ 발표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3

■ 토론

안기돈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3

정경석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25

이왕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7

◎ 주제 2 : 지방인재의 유출과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실태

■ 발표

류장수 (부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31

■ 토론

임경수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교수) 51

신기왕 (울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 부원장) 55

박노동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59

주제 1 : 지방위기, 압축도시만이 살길이다

- 발표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 토론문

안기돈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경석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왕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방위기, 압축도시만이 살길이다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2018.02.27(화)
제5차 사회정책포럼 발표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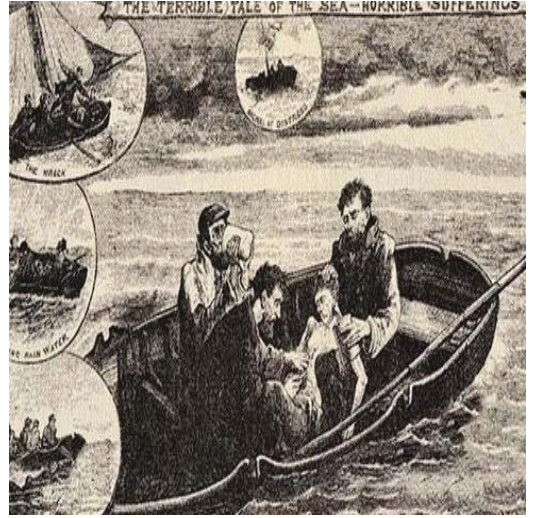
지방의 위기는 국가전체의 위기

- 저출산·고령화·저성장 추세로 인해 2040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30%는 1995년 대비 인구가 절반으로 떨어져 사실상 기능상실 상태에 빠질 것으로 예측되며, 그 중 절대다수(96%)가 지방 중소도시임
- 지방의 쇠퇴는 해당 지역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음
-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없는 지방 중소도시들은 정부예산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조만간 이 문제로 인해 온 나라가 골머리를 썩일 것임
- 따라서 지방도시 정책의 근본 패러다임을 바꿔야 함
- 그렇지 않으면 중앙정부는 공멸을 피하기 위해 '살생부'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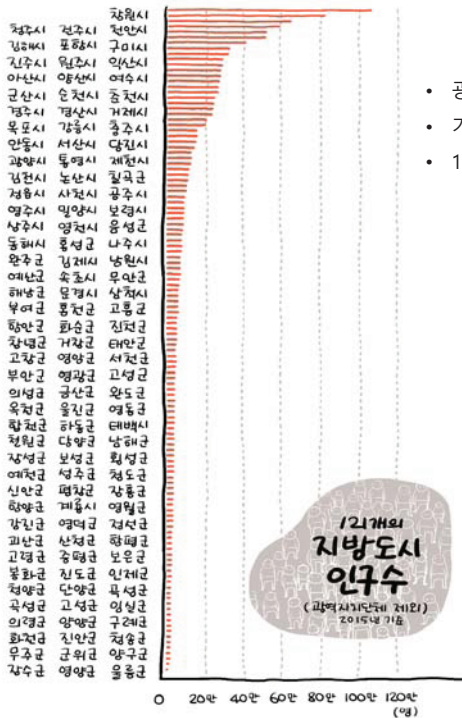
2

공리주의의 잔혹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 1884년 여름, 영국 선원 네 명이 육지에서 1천600km 떨어진 남대서양을 표류함
- 구명보트에는 순무 통조림 두 개뿐 마실 물도 없었음
- 이윽고 바닷물을 마신 한 어린 선원(리처드 파커, 17)은 사경을 헤맸고 나머지 선원들은 생존을 위해 잔인한 결단을 내림
- 살아남기 위해 병든 선원을 죽여 인육을 먹었음
- 표류 24일째 생존자 세 명은 구사일생으로 구조되지만 곧 재판에 회부된다.
- 당신이 판사라면 이들을 처벌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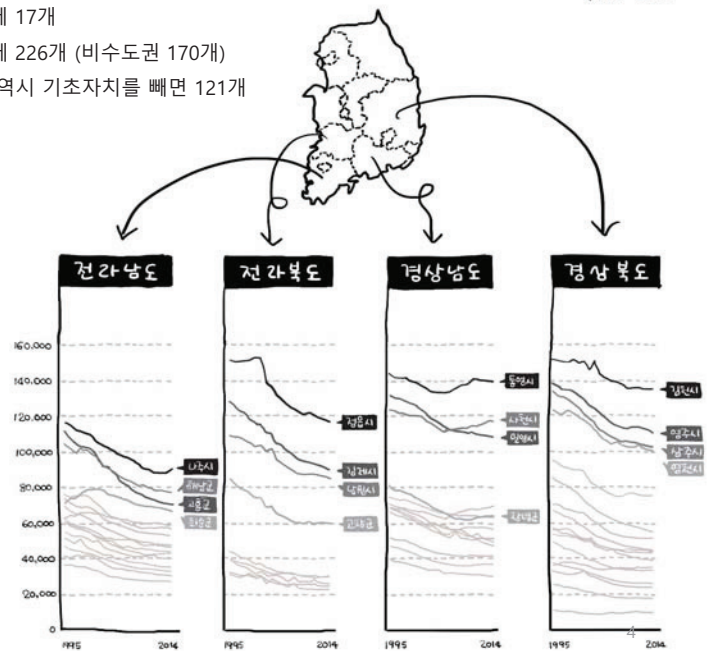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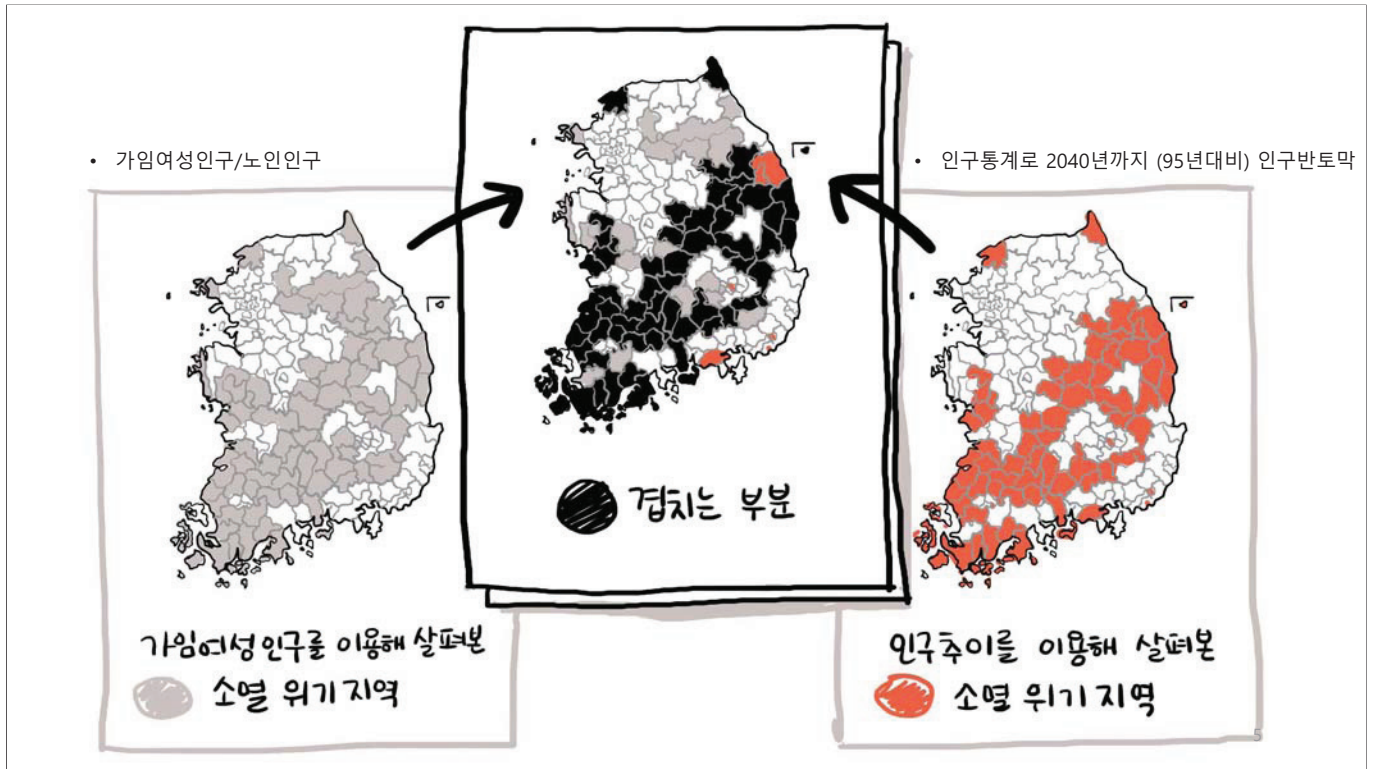


- 광역자치단체 17개
- 기초자치단체 226개 (비수도권 170개)
- 170개 중 광역시 기초자치체를 빼면 121개

인구 15만 이하인 중소도시들의 인구추이

1995 - 2014





충주 - 원도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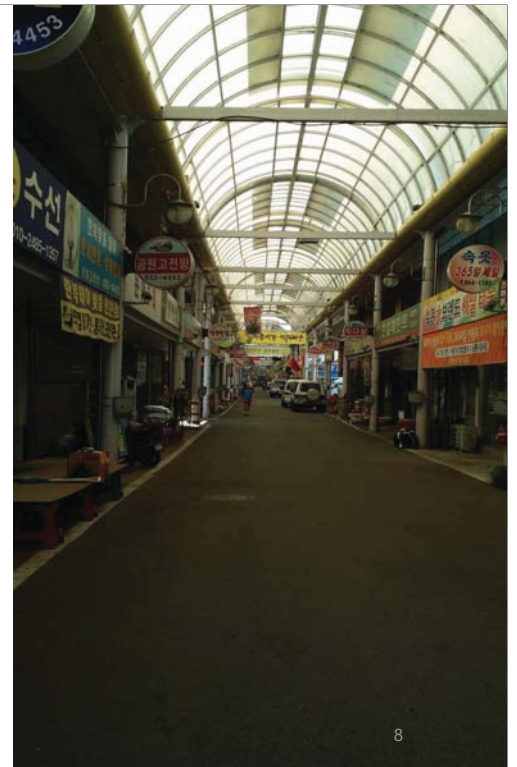


충주-원도심



7

충주 - 자유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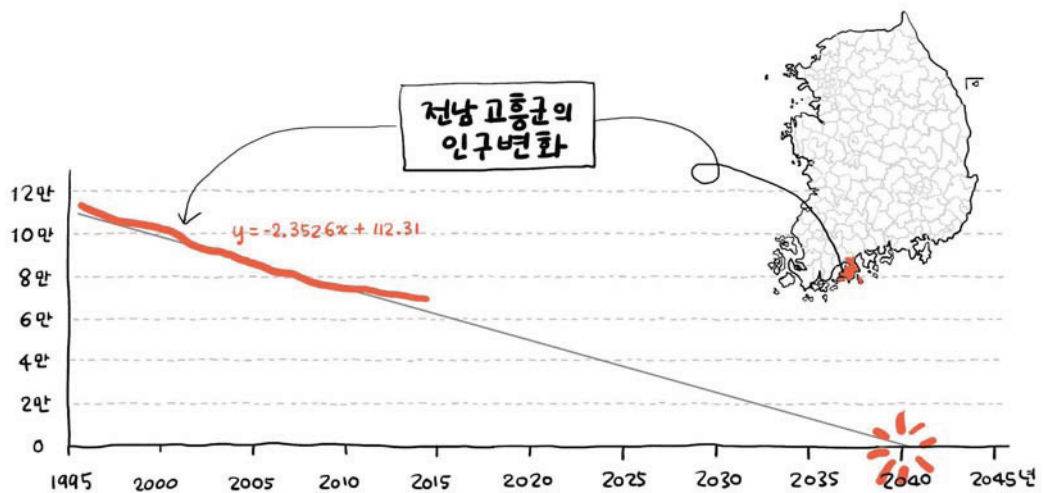


8

제천 - 약초시장



이 추세대로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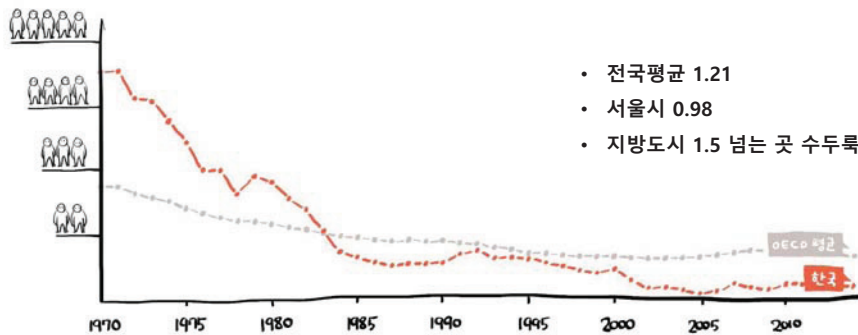


메가트렌드 - 저성장



• 변양균(2017), 경제철학의 전환, 바다출판사, p.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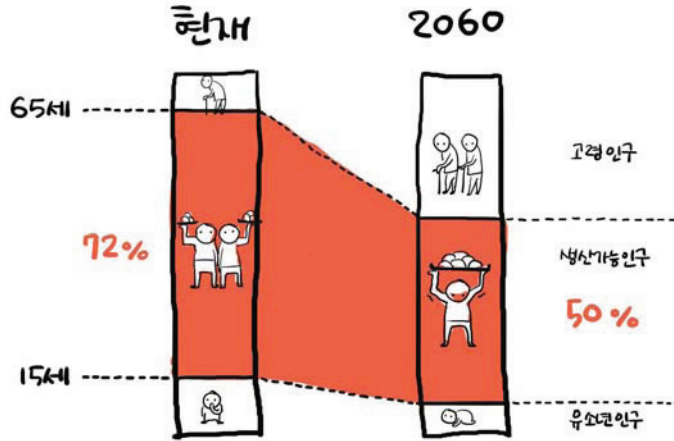
메가트렌드 - 저출산



• 인구의 쏠림현상은, 대도시는 저출산, 중소도시는 저출생의 문제를 낳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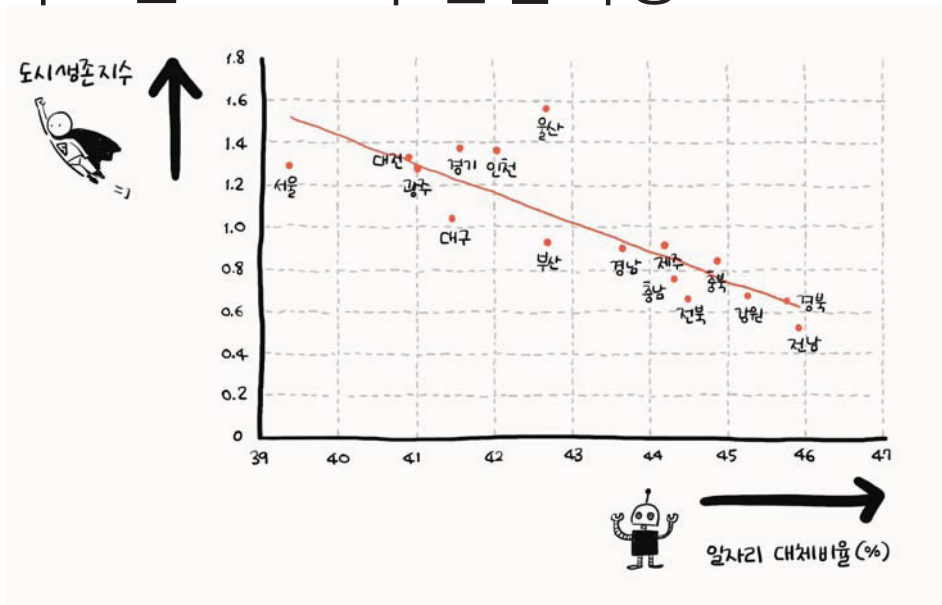
- 전국평균 1.21
- 서울시 0.98
- 지방도시 1.5 넘는 곳 수두룩

메가트렌드 - 고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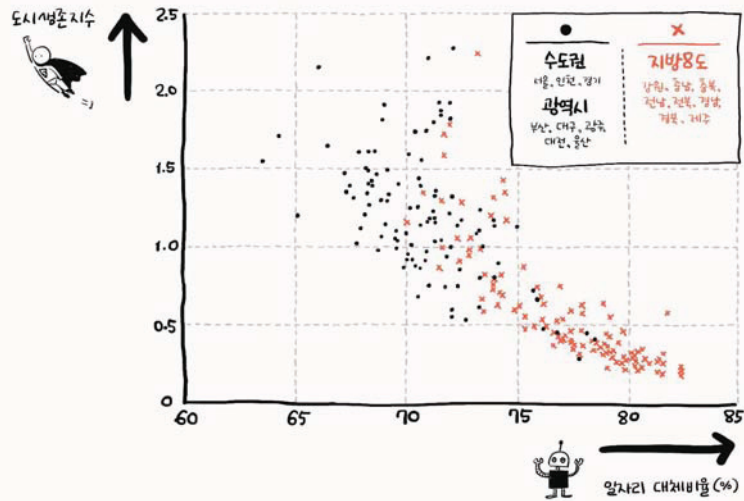


- 왼쪽 그림은 전국이 그렇다는 얘기
- 65세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지역은 228개 지자체의 38%
- 경북 의성군, 경북 군위군, 경남 합천군, 경남 남해군은 고령인구비율이 30%를 넘었음
- 마을이 사라지는 속도 = 어르신들이 세상을 떠나는 속도

메가트렌드 - 4차 산업혁명



메가트렌드 -4차 산업혁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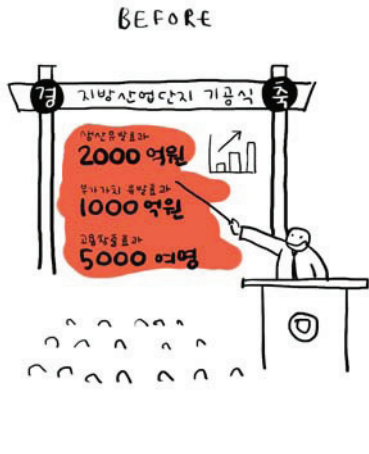
지방도시의 노력 - 산업단지

- 30만평은 2000개의 일자리(300평당 2명의 고용효과)
- 1000명 외부유입 → 인구증가
- 서울시 면적의 반 정도가 미분양 산업단지



출처: 연합뉴스(2016.05.15), '의욕'만 앞세운 산업단지 무더기 미분양... 지자체마다 골머리

지자체에 부담 주는 산업단지



-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33만 평)
- 약 2900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
- 목포시 한 해 예산은 6500억
- 미분양 예는 끝도 없어...

지방도시의 노력 -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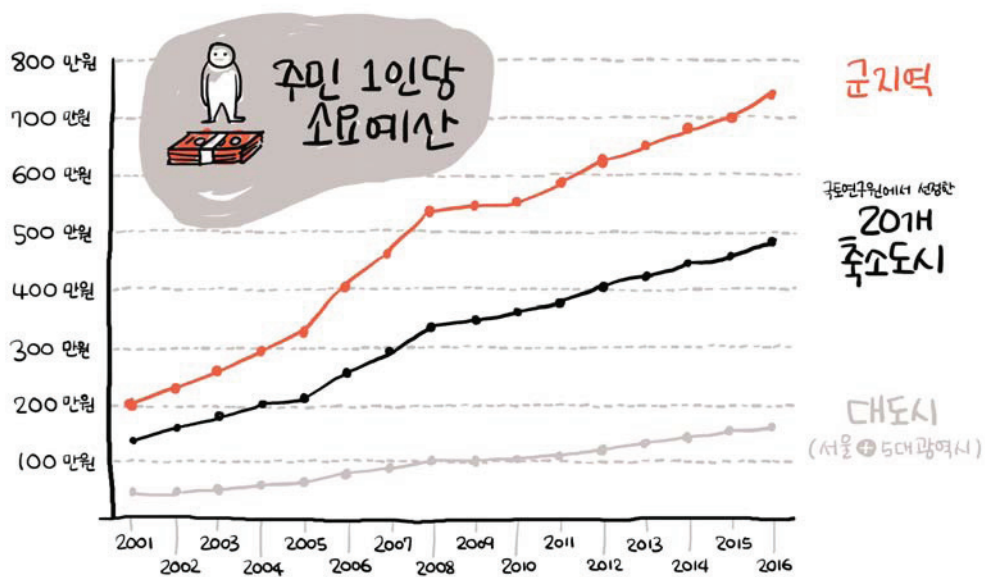


출처: 연합뉴스(2016.05.15), '의욕'만 앞세운 산업단지 무더기 미분양... 지자체마다 골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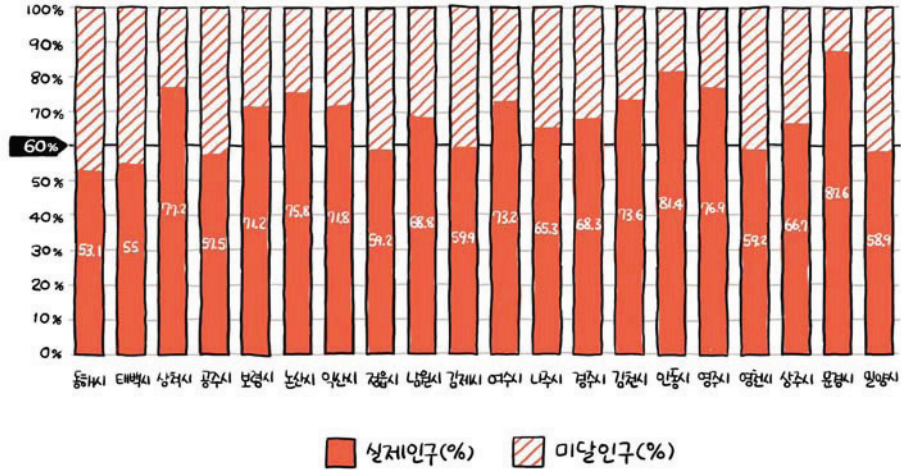




줄어드는 인구, 늘어나는 소요예산



아직도 성장, 성장, 성장!



쇠퇴도시 속초의 시정계획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도시,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속초!



국제적
관광인프라 구축



소득향상
지역경제모델 발굴·육성



맞춤형
생활복지 실현



사람중심
도시환경 조성



시민참여
열린행정 구현

쇠퇴도시 보령시의 장기발전계획

글로벌 보양도시(保養都市), 보령 산·들·바다가 어우러진 휴양·문화 허브

■ 글로벌 : 세계, 국제, 원형애, 행복애, 개방, 향만

- 충남도를 넘어 동북아로 보령의 브랜드 파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 보령신산 건설과 머드축제 명품화를 계기로 세계인이 찾아오는 지역으로 도약
- 보령시에서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 수준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게 고도화

■ 보양 : 관광, 레저, 휴양, 지류, 건강, 수련, 제철

- 보령의 아름다운 바다와 산, 들과 특산물, 휴양인프라를 기반으로 레저와 건강, 지류가 어우러진 복합관광을 지향
- 보령에는 다른 지역에서는 맛 볼수 없는 불거리, 먹거리, 살거리, 즐길거리가 준비되어 있어 언제나 감동을 줄 수 있는 곳으로 발전

■ 도시 : 지역, 산업, 진흥, 활력, 소득, 삶의 질, 생활, 정주

- 보령이 자랑하는 항포자원과 전통문화를 보양산업과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력화 도모
- 보양도시의 실현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활력넘치는 경주공간 조성을 통해 가능

1. 추진전략

■ 대전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한 허브앤스포크(Hub & Spoke) 전략

- 보령시내 주요거점과 지점을 연계하여 지역활성화 효과 극대화
 - 중간적으로 행정의 중심지인 대천시 동부 및 송천읍과 면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계
 - 관광지는 대전해수욕장을 관광거점으로 해안 및 내륙의 관광지과 유기적으로 연계
 - 산업적으로 중심산업인 관광휴양산업 및 자동차·부품산업과 여타 산업을 네트워크한 산업체계 구축

■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융복합화(Convergence) 전략

- 보령의 기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광휴양산업과 여타산업의 융복합화를 추진
- 자연환경, 생태농업, 문화 등을 녹색관광, 농촌관광과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 감성, 문화, 디자인 등 소프트웨어의 결합으로 부가가치 창출

■ 지역의 매력을 마케팅하는 브랜드(Brand) 전략

- 지역도 상품이라는 관점에서 고객의 구미에 맞는 장소를 만들어 가면서 가치 있는 상품으로 보령의 지역브랜드를 제고함
- 지역의 입지, 경관, 상품, 인재 등 잠재력을 개발전하고 상품화
- 고객과 시장을 향해 열린 마인드를 확산하고 지역혁신을 지속함 23

쇠퇴도시 군산의 시정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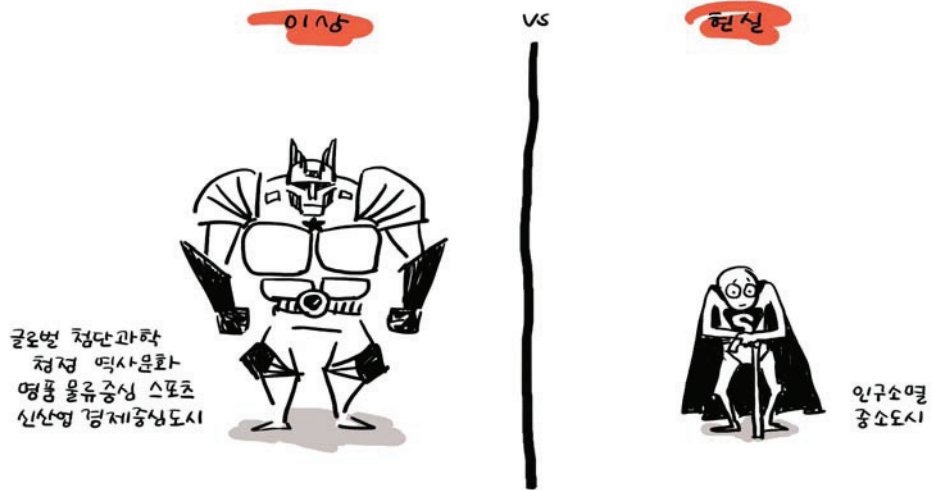
Cheer up! Tourism
천혜의 바경 고산선고도의 세계 최고의 (인)의미발표제가 있는 새만금관광도시

Cheer up! Culture
고부가가치 문화 콘텐츠가 풍부한 근대문화도시

Cheer up! Industry
동북아 경제 중심 새만금산업 8,7km², 군산신항 316m²가 있는 첨단산업도시

Cheer up! Logistics
항만 공항 고속도로 철도 등 사물산업의 한류대전국적물류도시

이상과 현실의 부조화



디트로이트 파산



- 1950년 180만 도시
- 2013년 파산시 70만
- 최근 10년간 공원70%폐쇄/가로등 10%작동 안함/경찰인력 40%감소/경찰출동시간 미국평균의 5배/흉악범죄율 1위...
- 이런 지역에 인프라를 어떻게 공급?



• 출처: AFPSource:AFP

유بار리 파산



10월 폐쇄된 유بار리시의 테마파크 '석탄 역사촌' 이 눈에 담여 있다. 유بار리시는 1990년부터 놀이시설과 박물관, 과학관 등 모두 21개의 관광시설을 세웠지만 경영부진으로 직자가 누적돼 결국 파산에 이르고 말았다.

- 출처: 중앙일보(2016.12.27), 파산한 일본 지자체 유بار리 시 가보니

- 1960년 10만 도시
- 2006년 1만 3천
- 400명이던 시직원이 100명/ 남은 이들의 연봉도 40% 수준/초등학교와 중학교는 1개만 남겨두고 폐쇄/구급차도 절반
- 이런 지역에 인프라를 어떻게 공급?

27

유بار리의 노력

2011년 당선된 유بار리 스키 시장(당시 30세)의 말

“20년 후 유بار리시 인구가 절반으로 줄 것을 전제로 한 전국 최초의 플랜이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한 대책도 중요하지만 인구감소에 대비한 마을 만들기를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인구감소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 어느 지역에서도 이런 플랜을 만들지 못했을까. 아마도 선거에서 표 떨어질 걱정 때문이었을 것이다. 유بار리시도 인구가 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인구증가를 전제로 시설을 늘리고 제도를 만들어왔다. 나는 **인구감소에 대비하지 않는 것은 시장으로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



28

작고 소박하지만 지속가능한 압축도시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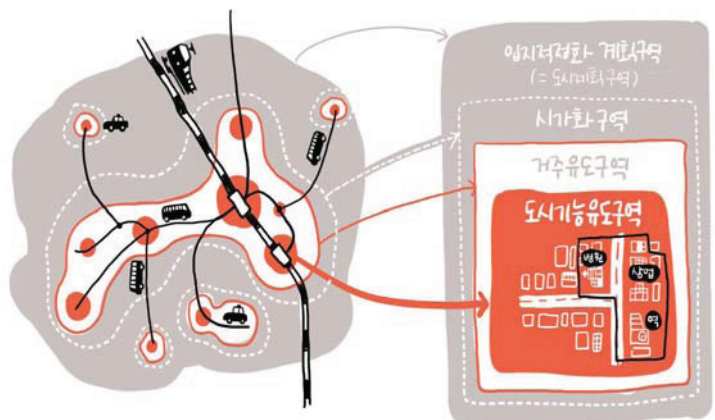
일본의 압축도시 전략

입지적정화계획 근거법 「도시재생특별조치법」(2002)

입지적정화계획은 2014년 8월 도시재생특별조치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추가되었음

2017년 7월 31일 기준 375개의 도시에서 입지적정화계획을 실시를 계획하고 있고, 이중 112곳이 7월 31일까지 계획을 작성하고 공표완료 하였음

특히, 도시기능유도구역과 거주유도구역을 함께 설정한 시정촌은 66곳, 도시기능유도구역만 설정한 시정촌이 46곳으로 나타남



30

나머지는 - Back to nature!



중소도시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

- 먼저, 현실을 직시하고 축소를 인정하자!
- 둘째, 흠어지면 죽는다!
- 셋째, 조그만 도시에 맞는 일자리 육성을 위해 체인점을 규제해야 한다!



중소도시의 비장의 무기는?

“체인점으로 점령된 대도시 변화가를 흉내 내는 건 도시의 수명을 단축하는 자살행위와 같다.

‘다윗 도시’가 ‘골리앗 도시’를 베끼는 과정에서 이미 비교우위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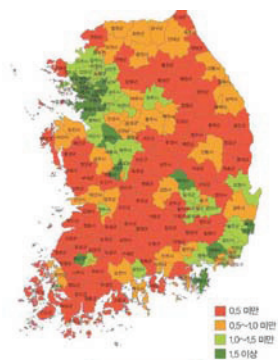
다윗이 골리앗에게 용감하게 맞설 수 있었던 이유는 ‘매끄러운 돌 다섯 개와 무릿매’가 있었기 때문이다.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상대를 다윗은 무릿매를 이용한 돌팔매질로 제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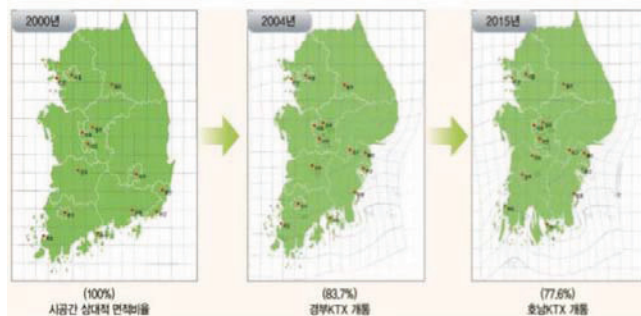
우리 국토공간구조의 재편

지방의 소멸



20-39세 여성인구와 65세이상 고령인구의 상대비, 오마이뉴스(2016. 9. 25), '저출산고령화로 지방소멸? 서울도 위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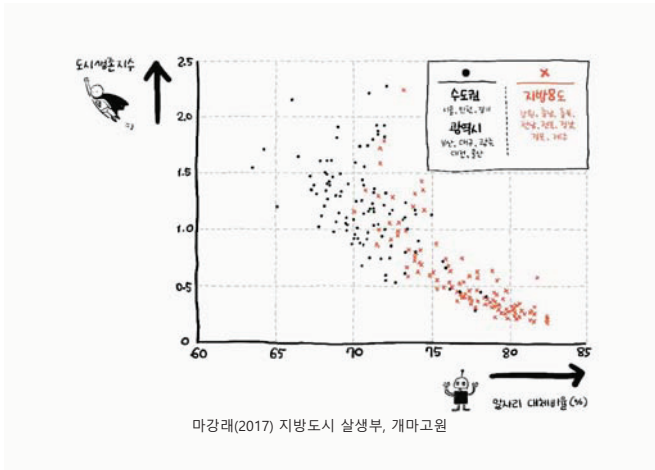
교통통신의 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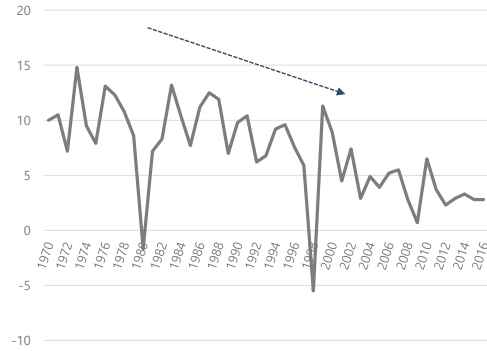
김현수 이수기(2017), GTX건설과 수도권공간구조의 재편방향,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대한교통학회 합동세미나 발제자료

우리 국토공간구조의 재편

4차 산업혁명



성장동력 상실과 저성장



35

광역화와 거점연결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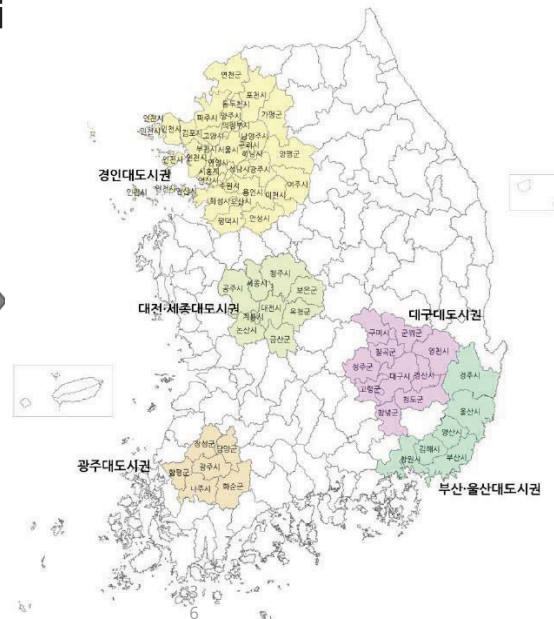
지방의 소멸

교통통신의 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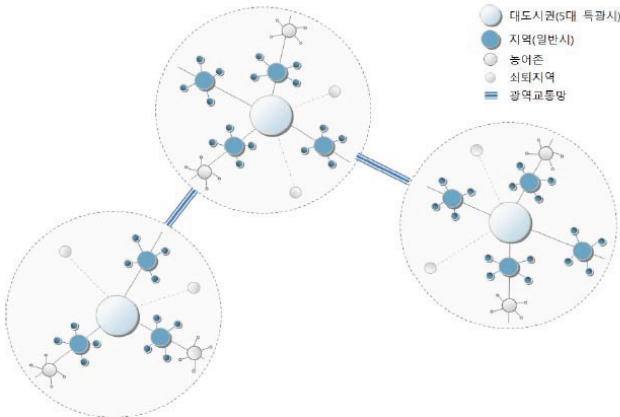
4차 산업혁명

성장동력 상실과 저성장

- 대도시권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인구의 80%를 상회하고 있음
- 즉, 대한민국 인구의 4/5가 면적 30%의 대도시권에서 거주하고 있음
- 이러한 대도시권화 현상은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거점'이란 교통·유통·교육·의료·복지·문화 서비스 공급의 중심 지역 역할을 하는 장소
- 일자리효과, 공공임대공급을 통한 주거복지효과, 주변지역 파급효과, 국토균형발전효과가 큰 곳
- 철도 항만 종전부지 저이용 공공시설중 도심접근성, 기반 시설여건이 양호한 입지
- **대도시권 거점, 중추도시 거점, 농·어촌 거점**으로 구분 할 수 있음



구분	거점 특징	주요서비스 내용
대도시권 거점	국토의 중심지역 역할을 수행하는 5대 대도시권의 거점	(네트워크) 광역교통망 및 신산업 범용적 원천기술 확보
중추도시 거점	지역의 중심지역 역할을 수행하는 중추도시 거점	(복합서비스) 도농연계 및 신산업 요소 기술 집중 육성, 상업 서비스 제공
농어촌 거점	지역공동체의 중심지역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공동체 거점 (농촌취락중심)	(기초생활서비스) 의료, 복지, 교육 서비스 연계 지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7), 국공유지활용방안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내부 워크샵

37

중추도시 거점

- 일반적으로 중소도시는 인구 5만 -50만의 도시
- 중소도시의 붕괴로, 우리나라는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의 3계층 체계에서 <대도시-농어촌>의 2계층 체계로 변화하고 있음
- 지방의 소멸 위기를 막는데 중소도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광역도	시	2015년 인구	인구변동률 (1995-2015)	광역도	시	2015년 인구	인구변동률 (1995-2015)
강원	춘천시	281,596	20.2%	전남	목포시	239,524	-3.2%
	원주시	330,854	39.5%		여수시	273,761	-12.8%
	강릉시	215,677	-2.1%		순천시	265,390	6.5%
	동해시	90,265	-5.4%		나주시	92,582	-14.1%
	태백시	46,715	-21.3%		광양시	144,414	18.3%
	속초시	79,846	-2.6%		경주시	262,310	-4.2%
충북	삼척시	69,509	-17.0%	김천시	137,540	-6.4%	
	충주시	211,005	3.0%	안동시	168,581	-10.5%	
충남	계천시	136,350	-0.5%	구미시	421,075	35.8%	
	공주시	113,542	-13.4%	영주시	109,266	-16.6%	
	보령시	101,852	-16.9%	영천시	97,669	-13.8%	
	아산시	319,929	107.3%	상주시	98,760	-20.4%	
	서산시	169,221	26.7%	훈경시	71,863	-22.1%	
	논산시	124,246	-15.2%	경산시	278,500	60.8%	
전북	당진시	163,762	46.7%	경남	진주시	349,788	6.1%
	군산시	275,155	3.3%		통영시	137,208	4.2%
	익산시	301,723	-6.3%		사천시	113,335	-0.1%
	정읍시	110,627	-20.5%		밀양시	108,069	-15.1%
	남원시	80,499	-22.2%		거제시	261,371	77.2%
	김제시	84,269	-27.0%		양산시	297,532	82.5%

박세훈 외(2017) 인구감소시대 지방중소도시 활력증진 방안, 국토연구원

마무리하며..

- **우리 국토도 앞으로 대도시권 집중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임**
 - ✓ 대도시권 현상을 유발하는 메가트렌드를 인정하고 이에 맞는 도농상생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함
- **지방분권 논의와 동시에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 행정구역의 초광역화를 통해 수도권에 대응할 초광역 지방정부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
- **대도시-중소도시 상생방안은 거점구축을 통한 지역간 연계전략이 중요함**
 - ✓ 지역간 연계는 '확산효과 > 빨대효과'의 방향으로 네트워크의 내용을 채우고 보완하는 전략이 필요
- **우리사회의 기술진보는 선택이 아닌 필연적 과정임**
 - ✓ 이러한 필연적 과정에서, 확산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에서의 신기술들을 이용한 '스마트 지역(smart region)'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토론문 1

압축도시 거주 노령인구 대상 지원 정책 과제



안기돈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본 발표는 현재 우리나라 지역도시가 쇠퇴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압축도시를 제안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쇠퇴하는 지역 중소도시들 재생을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 보다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예산투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본 발제자는 이와 같은 예산낭비의 비효율적인 정책을 과감하게 버리고 과감한 패러다임 변화 수단으로 압축도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압축도시 정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채택되어 성공한 지역들도 존재한다.
- OECD 역시 대한민국 압축도시 정책 추진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했다.
 - 첫째, 압축도시정책을 국지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한 포괄적인 국가차원의 프레임워크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 둘째, 압축도시 정책 대상은 쇠퇴지역이기 때문에 주민 이동 등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 접근 및 유연한 정책 추진 등을 제안하였다.
 - 셋째, 압축도시의 교통수단은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교통중심개발 전략으로 교통수요관리기법(TDM) 시행과 대중교통 공급 확대를 통해 대중교통과 근접한 서민주택 공급 등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 넷째, 압축도시 정책은 부처·기관을 넘어선 기능적·포괄적 접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차원의 거버넌스를 제안하였다.
- 압축도시의 공간 효율성과 경제성뿐만 아니라 압축된 공간으로 발생하는 삶의 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간의 질 높은 생활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본 발제에서 강조하는 지역의 중소도시의 경우 노령화로 인해 쇠퇴하는 지역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압축도시에서 거주하는 대상은 노령인구이기 때문에 최첨단 주거환경, 교통, 여가, 의료, 직업 등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여겨야 한다.

- 특히 의료와 여가의 경우 노령인구에게 가장 중요한 시설이다. 노령 인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즐거운 여가 환경이다. 압축도시는 노령 인구들이 친구들을 걸어서 만날 수 있는 접근성 및 교통시설을 제공하기 때문에 현재 급속하게 진행되는 노령화되는 지역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 압축도시 정책이다. 이와 같은 압축도시에서 노령 인구들이 여가 환경을 즐겁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건강이기 때문에 최첨단 의료시설은 필수조건이다.

토론문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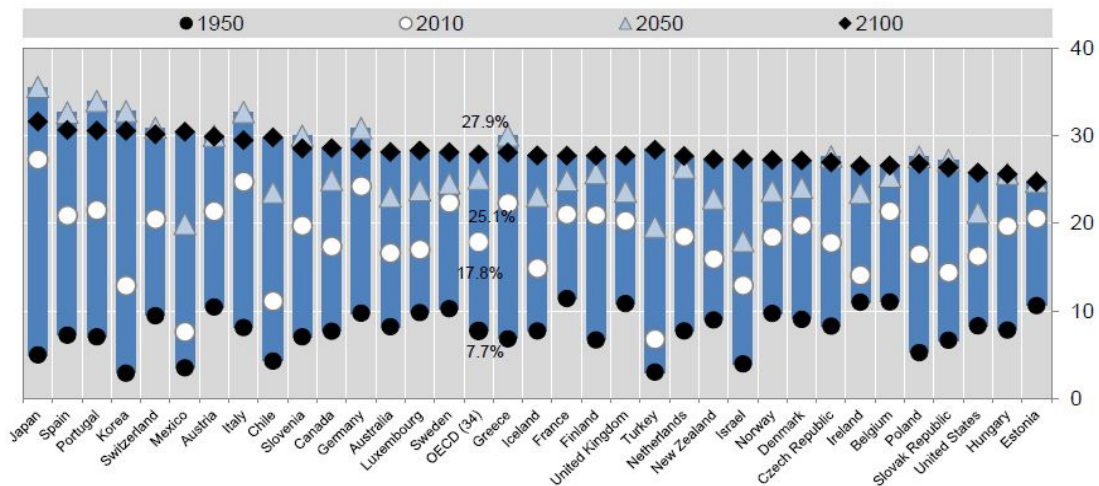
대도시권역을 중심거점으로 한 네트워크 도시 구축 전략



정경석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원)

- 인구감소 추세는 선형보다는 지수분포 형태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인구이동 추세 역시 지수분포 형태를 따르고 있음

- OECD 국가를 대상으로 65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 비중은 지난 2010년 17.8%에서 2050년에는 25.1%까지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자 중 약 43.2%는 현재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OECD, 2015).
 - 고령화 문제는 비단 지방의 농어촌 지역의 문제뿐만이 아닌 도시 지역의 문제이기도 함



- 국내외적으로 (대)도시권역으로 산업, 기업 활동, 일자리 등이 회귀하는 현상이 심화
 - 산업구조의 변화(지식기반, 도시첨단업종으로의 전환 및 성장 잠재력 대두)에 따른 제조업 중심의 대규모 산단 조성 필요성 감소, 지방산단 미분양 문제 해소 방안 대책 마련 시급

- 지방 농어촌 지역 및 인구과소 지역에서의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필수적 생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요 예산 급증 예상(경제적 비효율성 VS 공공재화로서의 비배재성/비경합성)
 - 세수감소 등에 따른 지자체 모라토리엄(재정 파산) 리스크 증가
 - 인구과소 지역에서의 정주환경 및 삶의 질 악화라는 악순환 반복 우려

- 압축 및 축소도시에 대한 논의는 인구과소 지역과 대도시 권역과의 관계구도 및 위상 재정립이라는 논의의 연장선에서 고려될 필요 있음
 - 일부 충청권 및 강원권으로의 수도권역 확장(예속화)에 따른 지방 대도시권역의 기능 및 역할이 점차 축소
 - 국토 공간이 다핵공간구조 형태가 아닌 수도권 중심의 일극 구조(밤송이 형태) 형태로 심화(시공간의 제약이 무너지는 시공간 압축 현상 심화로 지방이 점차 소멸)

- 대도시권역을 중심으로 90분내(응급의료서비스의 도달한계 거리) 도달 가능한 접근성 제공 필요
 - 생활서비스에 대한 위계 재정립 및 재배분 계획 필요(기초생활서비스 vs 광역생활서비스 재정립 및 관련 시설의 입지 재배분 정책 마련 필요)
 - 물리적 환경에서의 교통 인프라 연계망 구축과 가상공간상에서의 도시서비스 접근성 제고 노력 필요(스마트 리전 전략 필요)

- 대도시권역을 중심거점으로 한 네트워크 도시 구축 전략이 유효하리라 봄

토론문 3

지방위기, 도시계획 차원의 대응전략



이왕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인구변화 추이는 현재의 연장선상에서 산술적으로 본 것이므로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음
 - 소멸이라는 일본에서 사용된 용어는 다소 무리
 - 향후 통일, 이주민 증가, 출산율 증가 등 다양한 변수가 있음
 - 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소득양극화, 고령화라고 생각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패러다임과 접근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은 분명함
 - 중앙정부를 통한 예산확보방식으로 건설된 인프라가 유지관리비용 증가로 인해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
 - 시민들이 요구하는 복지의 질적 수준도 계속 높아지고 있음

- 아직은 성장의 신화(myth)와 축소되는 흐름을 인정하기 힘든 사실(fact)이 충돌하는 시기
 - 선출직 지자체 장으로서 쉽게 포기하기 힘든 것이 현실

- 군산의 경우에도 현대조선, GM의 철수예정으로 지역경제가 심각한 위기상황
 - 거제, 통영, 광양, 울산, 포항, 창원 등 제조업 중심도시들의 미래가 어두운 상황

- 도시별 특성에 맞는 스마트 축소도시 전략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관건
 - 펼쳐져 있는 것을 다시 돌리는 축소전략이 필요하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은 누구도 선호하지 않음
 - 특히 고령층의 경우 주민들의 이주가 정책 의지대로 실현되지 않음

- 피할 수 없는 대세라면 현상에 대한 사고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
 - 축소도시가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것은 아님
 - 과밀된 지역의 경우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게 됨
 -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공원 설치, 문화복지시설 설치 등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제공
 - 고성장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삶의 질을 높이는 방식으로 전환
 - 남과 경쟁하기보다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주공간 만들기에 주력할 필요

- 축소대응 전략
 - 과도한 성장전략보다 완화(mitigation), 적응(adaptation)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여 정책방향과 대응전략의 실천성에 초점을 두어야 함
 - 인접한 시군과 연계협력형 지역개발사업 추진
 - 장기적으로는 인접 시·군과의 행정구역 통합전략도 고려하여야 함

- 도시계획 차원의 대응전략
 - 브라운필드(brownfield) 재활용
 - 빈 집: DB구축 및 철거를 포함한 활용방안 마련
 - 빈 상가 : DB구축 및 철거를 포함한 활용방안 마련
 - 충전형 개발(infill development): 택지개발사업, 산단조성사업을 통해 조성된 지역의 미개발용지를 우선적으로 활용토록 유도
 - 특별용도지역을 통한 복합용도 개발 유도
 - 직주근접
 - 도시재생
 - 교외녹지지역에 대한 개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감

주제 2 : 지방인재의 유출과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실태

- 발표

류장수 (부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토론문

임경수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교수)

신기왕 (울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 부원장)

박노동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지방인재의 유출과 지방대학 졸업자의 취업실태

2018. 2. 27.

류장수 /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CONTENTS

- I **서론**
- II **지방인재의 유출 실태**
- III **지방대학 졸업자의 취업 실태**
- IV **지방대학 및 지역발전 방안**

I

서론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에 우수 인재들이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 정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우수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대거 유출되고 있는 실정임
 - 지역의 우수 고졸자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면서 지역 우수 인재들의 1차 유출이 발생하고, 수도권 대학으로의 편입을 통해 그리고 지역대학 졸업후 수도권 지역의 직장으로 2차 유출이 발생하고 있음
 - 지역인재의 이러한 유출로 인해 지역발전은 더욱 어렵게 되고, 수도권 지역으로 사람, 자본이 더욱 집중함으로써 국가의 불균형 발전이 확대 재생산되어 지역발전은 물론이고 국가발전 역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임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지역의 우수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지역대학의 우수 인력양성이 어려웠던 중요한 이유는 지역대학 졸업자들의 취업 성과가 수도권대학 졸업자들에 비해 낮았기 때문이지만, 지역대학 졸업 후 취업성과 현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연구는 미흡했음
- 지역발전을 위해 그리고 지역대학이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졸업자의 취업성과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계정보에 기반한 취업현황(양과 질) 분석을 통해 인력양성정책과 고용정책간의 정합성을 높이고 지역인재 고용활성화 및 고용의 질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필요함

5

분석 내용 및 자료

- 분석 내용
 - 지방인재의 유출 실태(1차 유출 및 2차 유출)
 - 지방대학 졸업자의 취업 실태
 - 지방대학 및 지역발전 방안
 - 분석 내용
 - 한국고용정보원의 '2014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GOMS) 자료
- ※ 2013년 8월과 2014년 2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2015년 9월 1일 기준으로 설문조사한 자료임(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졸업자 약 18,000명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

6

II

지방인재의 유출 실태

1. 고교 → 대학 유출입 현황 및 수치

<표 II-1> 고교졸업권역별 · 대학소재지권역별 진학현황 :
고교 → 4년제대학, 전문대 (2014년)

(단위: 명, 행%)

권역		대학소재지 권역								
		합계	수도권	지방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제주	
고교졸업권역	합계	명	490,547	200,254	290,292	81,985	54,194	61,935	68,127	24,052
		%	100.0	40.8	59.2	16.7	11.0	12.6	13.9	4.9
	수도권	%	100.0	70.4	29.6	15.9	3.7	3.1	3.0	4.0
	지방	%	100.0	17.8	82.2	17.4	16.8	20.0	22.3	5.6
	충청권	%	100.0	21.3	78.7	63.7	5.8	4.7	2.6	2.0
	호남권	%	100.0	17.7	82.3	6.3	67.9	2.7	4.1	1.3
	대경권	%	100.0	15.4	84.6	7.7	2.5	66.0	6.5	1.9
	동남권	%	100.0	15.8	84.2	5.4	3.3	10.6	63.4	1.4
	강원·제주	%	100.0	25.2	74.8	8.9	2.8	4.6	2.9	55.7

1. 고교 → 대학 유출입 현황 및 수치

<표 II-2> 고교졸업권역별 · 대학소재지권역별 인력유출입 수치 :
4년제대학, 전문대 (2014년)

(단위: 명, 행%)

권역		대학소재지 권역						
		합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제주
고교졸업권역	수도권	-14,279		-22,953	2,190	3,014	6,774	-3,304
	충청권	29,952	22,953		557	2,421	3,213	808
	호남권	-2,426	-2,190	-557		28	435	-142
	대경권	-874	-3,014	-2,421	-28		4,858	-269
	동남권	-15,856	-6,774	-3,213	-435	-4,858		-576
	강원·제주	3,483	3,304	-808	142	269	576	

9

2. 대학 → 취업 유출입 현황 및 수치

<표 II-3> 졸업권역별 · 직장소재지권역별 졸업생 취업현황 :
4년제 대학, 전문대 → 취업 (2014년)

(단위: 명, 행%)

권역			직장소재지 권역							
			합계	수도권	지방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제주
대학 졸업 권역	합계	명	369,843	197,486	172,357	37,611	29,864	37,336	52,929	14,617
		%	100.0	53.4	46.6	10.2	8.1	10.1	14.3	4.0
	수도권	%	100.0	91.7	8.3	3.1	1.1	1.2	1.8	1.2
	지방	%	100.0	27.3	72.7	15.0	12.8	16.2	22.9	5.9
	충청권	%	100.0	49.8	50.2	43.4	1.2	1.6	2.2	1.8
	호남권	%	100.0	22.3	77.7	5.9	65.6	1.5	3.4	1.3
	대경권	%	100.0	16.0	84.0	4.4	1.0	65.6	11.4	1.6
	동남권	%	100.0	9.4	90.6	1.7	1.0	4.4	83.0	0.6
	강원·제주	%	100.0	39.3	60.7	2.5	0.5	1.8	1.2	54.7

10

2. 대학 → 취업 유출입 현황 및 수치

<표 II-4> 졸업권역별 · 직장소재지권역별 인력유출입 수치 :
4년제 대학, 전문대 → 취업 (2014년)

(단위: 명)

권역		직장소재지 권역						
		합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제주
대학졸업권역	수도권	47,448		26,555	7,326	5,907	2,079	5,581
	충청권	-25,003	-26,555		1,599	1,135	-535	-647
	호남권	-10,364	-7,326	-1,599		-118	-899	-422
	대경권	-10,590	-5,907	-1,135	118		-3,261	-405
	동남권	2,546	-2,079	535	899	3,261		-70
	강원·제주	-4,037	-5,581	647	422	405	70	

11

2. 대학 → 취업 유출입 현황 및 수치

<표 II-5> 졸업권역별 · 직장소재지권역별 졸업생 취업현황 :
4년제대학 → 취업 (2014년)

(단위: 명, 행%)

권역			직장소재지 권역							
			합계	수도권	지방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제주
대학 졸업 권역	합계	명	224,347	123,572	100,775	23,557	16,780	19,751	32,141	8,546
		%	100.0	55.1	44.9	10.5	7.5	8.8	14.3	3.8
	수도권	%	100.0	89.2	10.8	3.8	1.1	1.8	2.7	1.4
	지방	%	100.0	33.4	66.6	14.8	11.5	13.2	21.7	5.3
	충청권	%	100.0	55.4	44.6	37.6	1.3	1.8	2.2	1.8
	호남권	%	100.0	25.7	74.3	6.1	62.0	1.7	3.1	1.4
	대경권	%	100.0	20.4	79.6	4.1	0.7	59.6	13.8	1.4
	동남권	%	100.0	12.6	87.4	1.5	1.1	5.6	78.6	0.5
	강원·제주	%	100.0	46.4	53.6	2.5	0.8	2.5	0.9	46.9

12

2. 대학 → 취업 유출입 현황 및 수치

<표 Ⅱ-6> 졸업권역별 · 직장소재지권역별 인력유출입 수치 :
4년제대학 → 취업 (2014년)

(단위: 명)

권역		직장소재지 권역						
		합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제주
대학졸업권역	수도권	36,339		21,835	5,047	3,523	1,629	4,305
	충청권	-21,799	-21,835		837	218	-506	-513
	호남권	-6,697	-5,047	-837		-216	-369	-228
	대경권	-5,288	-3,523	-218	216		-1,704	-59
	동남권	884	-1,629	506	369	1,704		-66
	강원·제주	-3,439	-4,305	513	228	59	66	

13

3. 고교 → 취업 유출입 현황 및 수치

<표 Ⅱ-7> 고교졸업권역별 · 직장소재지권역별 졸업생 취업현황 :
4년제대학, 전문대 → 취업 (2014년)

(단위: 명, 행%)

권역			직장소재지 권역							
			합계	수도권	지방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제주
고교 졸업 권역	합계	명	366,756	195,308	171,448	37,332	29,628	37,254	52,685	14,549
		%	100.0	53.3	46.7	10.2	8.1	10.2	14.4	4.0
	수도권	%	100.0	85.9	14.1	4.6	2.0	1.9	3.7	1.9
	지방	%	100.0	27.9	72.1	14.6	12.8	16.6	22.7	5.5
	충청권	%	100.0	32.8	67.2	57.0	2.3	3.0	3.1	1.7
	호남권	%	100.0	30.3	69.7	5.0	57.2	2.1	4.2	1.2
	대경권	%	100.0	26.3	73.7	5.5	1.9	57.7	6.8	1.8
	동남권	%	100.0	22.2	77.8	3.8	1.7	6.5	64.5	1.3
	강원·제주	%	100.0	36.2	63.8	3.4	0.8	2.7	3.3	53.6

14

3. 고교 → 취업 유출입 현황 및 수치

<표 II-8> 고교졸업권역별 · 직장소재지권역별 인력유출입 수치 :
4년제대학, 전문대 (2014년)

(단위: 명, 행%)

권역		직장소재지 권역						
		합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제주
고교졸업권역	수도권	34,889		5,594	9,258	9,526	7,834	2,677
	충청권	-2,019	-5,594		1,149	1,454	1,112	-140
	호남권	-11,421	-9,258	-1,149		31	-698	-347
	대경권	-10,647	-9,526	-1,454	-31		809	-445
	동남권	-9,324	-7,834	-1,112	698	-809		-267
	강원·제주	-1,478	-2,677	140	347	445	267	

15

III

지방대학 졸업자의 취업 실태

1. 지방대학 졸업자의 주요 특성

<표 Ⅲ-1> 대학 소재지 기준 졸업자 고교 소재지 현황(2014)

(단위: 명, 열%, %)

		대학 소재지					
		합계		수도권		지방	
		명, 열%	취업률	명, 열%	취업률	명, 열%	취업률
합계		494,324	74.9	202,151	74.3	292,173	75.4
고교 소재지	수도권	43.7	74.9	75.4	74.3	21.9	76.2
	충청권	10.6	75.7	5.5	72.6	14.1	76.5
	호남권	11.5	72.7	5.0	74.7	16.1	72.3
	대경권	12.8	76.4	4.8	74.6	18.3	76.7
	동남권	17.1	73.9	6.6	72.9	24.4	74.1
	강원·제주	4.2	77.9	2.6	77.3	5.3	78.1

17

1. 지방대학 졸업자의 주요 특성

<표 Ⅲ-2> 대학 소재지 기준 졸업자 인적특성(2014)

(단위: 명, 열%, %)

		전체		수도권		지방	
		명, 열%	취업률	명, 열%	취업률	명, 열%	취업률
전체		494,324	74.9	202,151	74.3	292,173	75.3
고교특성	인문계	80.7	74.4	81.5	74.0	80.2	74.7
	외고/과학고등	1.9	66.2	3.0	66.1	1.1	66.2
	농상공고	15.3	80.3	12.8	79.8	17.0	80.5
	기타	2.1	68.7	2.7	69.5	1.7	67.8
부의학력	고졸이하	59.2	76.4	52.3	76.3	64.0	76.5
	전문대졸	4.8	74.7	4.7	75.3	4.8	74.3
	대졸	29.9	73.7	34.3	73.3	26.8	74.0
	대학원이상	6.2	66.8	8.7	65.9	4.4	67.9
대학입학당시부모 년월평균소득	100만미만	5.0	77.0	3.4	75.4	6.1	77.6
	100~200만	8.1	74.7	7.4	71.5	8.5	76.6
	200~300만	16.4	75.5	14.2	75.3	17.9	75.6
	300~500만	50.3	75.2	50.4	75.1	50.2	75.2
	500~1000만	16.7	73.4	19.9	72.6	14.5	74.2
	1000만이상	3.6	72.7	4.8	72.7	2.9	72.7

18

1. 지방대학 졸업자의 주요 특성

<표 Ⅲ-3> 대학 소재지 기준 졸업자 대학관련 특성(2014)

(단위: 명, 열%, %)

		전체		수도권		지방	
		명, 열%	취업률	명, 열%	취업률	명, 열%	취업률
전체		494,324	74.9	202,151	74.3	292,173	75.3
대학성적	3.0미만	3.2	72.3	2.9	68.4	3.5	74.6
	3.0~4.0미만	69.8	74.9	71.6	74.8	68.6	74.9
	4.0이상	27.0	75.0	25.5	73.7	28.0	75.9
토익성적	500점미만	7.6	77.3	3.9	73.9	11.5	78.6
	500~700점미만	21.3	73.5	14.7	72.0	28.2	74.4
	700~850점미만	39.7	69.7	39.4	69.6	39.9	69.8
	850점이상	31.4	73.2	42.0	73.0	20.4	73.5
어학연수	안함	89.9	75.1	88.6	74.3	90.9	75.6
	함	10.1	73.3	11.4	74.1	9.1	72.6
졸업유예	안함	91.2	74.8	87.5	74.1	93.7	75.3
	함	8.8	76.0	12.5	75.7	6.3	76.5

19

1. 지방대학 졸업자의 주요 특성

<표 Ⅲ-4> 대학 소재지 기준 졸업자 취업준비 관련 현황(2014)

(단위: 명, 열%, 횟수, 점)

		전체	수도권	지방
전체		494,324	202,151	292,173
진로, 취업 관련 교과목	횟수	1.0	1.0	1.0
	만족도	3.3	3.2	3.3
직장체험 프로그램	횟수	0.3	0.3	0.3
	만족도	3.7	3.8	3.7
직업심리검사	횟수	0.8	0.8	0.8
	만족도	3.2	3.2	3.2
교내취업박람회	횟수	0.4	0.5	0.4
	만족도	3.1	3.2	3.1
진로관련상담프로그램	횟수	0.6	0.6	0.6
	만족도	3.3	3.3	3.3
면접기술, 이력서 작성	횟수	0.6	0.7	0.6
	만족도	3.6	3.6	3.6
취업캠프	횟수	0.2	0.2	0.2
	만족도	3.5	3.5	3.4
기업채용설명회	횟수	0.6	0.8	0.5
	만족도	3.3	3.3	3.2

주) 횟수와 만족도는 해당 권역 평균값임. 만족도는 1. 매우 불만족 ~ 5. 매우 만족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것임

20

2. 지방대 졸업자의 취업 실태

<표 Ⅲ-5> 대학 소재지 기준 취업자 취업 현황(2014)

(단위: 명, 열%)

		전체	수도권	지방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제주
전체		367,738	148,842	218,896	62,312	40,007	47,728	50,164	18,684
직장 규모	5인미만	10.6	9.3	11.6	10.7	13.4	12.6	10.0	11.8
	5~9인	10.5	10.6	10.4	10.8	11.7	8.4	10.6	11.1
	10~99인	30.8	29.2	31.8	32.1	30.8	31.9	33.0	29.7
	100~299인	10.8	9.7	11.5	12.0	11.4	10.2	12.5	10.6
	300~999인	11.2	11.4	11.0	11.7	9.5	10.9	11.2	11.5
	1000인이상	26.2	29.8	23.7	22.6	23.3	25.8	22.7	25.3
임금 수준	100만원미만	6.3	7.0	5.9	5.8	6.4	6.7	4.5	6.9
	100~200만원미만	45.0	42.2	46.9	47.2	49.7	46.8	44.3	46.8
	200~300만원미만	35.4	34.0	36.4	38.1	32.1	35.1	38.5	37.6
	300~500만원미만	11.6	15.3	9.1	7.9	9.4	9.4	10.9	7.2
	500만원이상	1.6	1.5	1.7	0.9	2.5	2.0	1.8	1.5

21

2. 지방대 졸업자의 취업 실태

<표 Ⅲ-5> 앞의 표 연결

(단위: 명, 열%)

		전체	수도권	지방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제주
직장 만족도	매우 불만족	1.3	1.3	1.4	1.7	0.9	1.0	1.1	2.8
	불만족	8.6	9.3	8.2	9.1	8.3	7.8	7.8	6.8
	보통	35.8	35.0	36.4	34.3	33.4	41.7	36.9	35.0
	만족	45.9	45.3	46.4	46.6	50.2	42.4	46.9	46.6
	매우 만족	8.2	9.2	7.6	8.2	7.3	7.1	7.3	8.8
업무 만족도	매우 불만족	1.1	1.2	1.1	1.3	0.9	1.1	0.9	1.9
	불만족	7.3	7.7	7.0	8.1	7.1	6.2	6.7	5.9
	보통	34.4	33.0	35.3	33.0	32.9	39.7	35.8	35.5
	만족	48.1	48.2	48.0	47.6	51.1	45.7	48.9	46.6
	매우 만족	9.1	10.0	8.6	10.1	8.0	7.3	7.8	10.1

22

2. 지방대 졸업자의 취업 실태

<표 Ⅲ-6> 졸업권역별·직장소재지권역별 국공립대 졸업생 취업현황 :
4년제 대학 → 취업 (2014년)

(단위: 명, 행%)

			직장소재지 권역							
			합계	수도권	지방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제주
국공립대 졸업자 졸업권역	합계	빈도	51,137	19,215	31,922	7,640	6,498	4,755	8,993	4,036
		%	100.0	37.6	62.4	14.9	12.7	9.3	17.6	7.9
	수도권	빈도	9,785	8,426	1,359	556	169	136	336	162
		%	100.0	86.1	13.9	5.7	1.7	1.4	3.4	1.7
	지방	빈도	41,352	10,789	30,563	7,084	6,329	4,619	8,657	3,874
		%	100.0	26.1	73.9	17.1	15.3	11.2	20.9	9.4
	충청권	%	100.0	39.1	60.9	52.0	2.3	3.3	1.6	1.7
	호남권	%	100.0	21.6	78.4	8.7	63.1	1.8	3.8	1.0
	대경권	%	100.0	26.0	74.0	7.1	0.6	51.1	13.9	1.2
	동남권	%	100.0	12.2	87.8	3.6	1.7	7.3	75.1	0.1
	강원·제주	%	100.0	33.0	67.0	2.3	1.7	2.2	0.9	60.0

23

2. 지방대 졸업자의 취업 실태

<표 Ⅲ-7> 졸업권역별·직장소재지권역별 사립대 졸업생 취업현황 :
4년제 대학 → 취업 (2014년)

(단위: 명, 행%)

			직장소재지 권역 : 사립대 졸업자							
			합계	수도권	지방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제주
사립대 졸업자 졸업권역	합계	빈도	172,662	104,098	68,564	15,673	10,269	14,996	23,116	4,510
		%	100.0	60.3	39.7	9.1	5.9	8.7	13.4	2.6
	수도권	빈도	77,448	69,383	8,065	2,722	807	1,453	1,985	1,098
		%	100.0	89.6	10.4	3.5	1.0	1.9	2.6	1.4
	지방	빈도	95,214	34,715	60,499	12,951	9,462	13,543	21,131	3,412
		%	100.0	36.5	63.5	13.6	9.9	14.2	22.2	3.6
	충청권	%	100.0	60.3	39.7	33.1	1.1	1.3	2.3	1.8
	호남권	%	100.0	28.3	71.7	4.5	61.3	1.7	2.6	1.6
	대경권	%	100.0	18.5	81.5	3.0	0.8	62.5	13.7	1.5
	동남권	%	100.0	12.8	87.2	0.6	0.9	4.8	80.1	0.7
	강원·제주	%	100.0	59.3	40.7	2.7	0.0	2.8	0.9	34.3

24

2. 지방대 졸업자의 취업 실태

<표 Ⅲ-8> 졸업권역별 · 직장소재지권역별 인문 · 사회 · 교육계열 졸업생 취업현황 :
4년제 대학 → 취업 (2014년)

(단위: 명, 행%)

			직장소재지 권역							
			합계	수도권	지방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 · 제주
인문 ·	합계	빈도	101,934	56,601	45,333	10,048	7,572	8,902	14,578	4,233
		%	100.0	55.5	44.5	9.9	7.4	8.7	14.3	4.2
수도권	합계	빈도	42,193	38,340	3,853	1,309	400	769	824	551
		%	100.0	90.9	9.1	3.1	0.9	1.8	2.0	1.3
사회 · 교육 계열 졸업 권역	지방	빈도	59,741	18,261	41,480	8,739	7,172	8,133	13,754	3,682
		%	100.0	30.6	69.4	14.6	12.0	13.6	23.0	6.2
	충청권	%	100.0	54.8	45.2	37.6	1.0	2.0	2.7	1.9
	호남권	%	100.0	19.7	80.3	6.3	69.6	2.0	0.6	1.8
	대경권	%	100.0	15.0	85.0	2.8	0.9	64.7	15.9	0.7
	동남권	%	100.0	11.9	88.1	1.0	1.4	3.6	81.1	1.0
	강원 · 제주	%	100.0	39.3	60.7	3.0	0.4	2.5	0.1	54.6

25

2. 지방대 졸업자의 취업 실태

<표 Ⅲ-9> 졸업권역별 · 직장소재지권역별 공학 · 자연 · 의약계열 졸업생 취업현황 :
4년제 대학 → 취업 (2014년)

(단위: 명, 행%)

			직장소재지 권역							
			합계	수도권	지방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 · 제주
공학 ·	합계	빈도	95,517	49,885	45,632	11,227	7,340	9,139	14,280	3,646
		%	100.0	52.2	47.8	11.8	7.7	9.6	15.0	3.8
자연 ·	합계	빈도	33,894	29,210	4,684	1,657	474	656	1,286	611
		%	100.0	86.2	13.8	4.9	1.4	1.9	3.8	1.8
의약 계열 졸업 권역	지방	빈도	61,623	20,675	40,948	9,570	6,866	8,483	12,994	3,035
		%	100.0	33.6	66.4	15.5	11.1	13.8	21.1	4.9
	충청권	%	100.0	52.6	47.4	40.3	1.4	2.0	2.1	1.7
	호남권	%	100.0	28.8	71.2	6.6	57.1	1.9	5.0	0.6
	대경권	%	100.0	23.5	76.5	5.6	0.5	56.4	12.1	2.0
	동남권	%	100.0	13.3	86.7	2.4	0.8	7.9	75.4	0.2
	강원 · 제주	%	100.0	49.7	50.3	2.0	1.3	3.0	1.7	42.2

26

2. 지방대 졸업자의 취업 실태

<표 Ⅲ-10> 졸업권역별 · 직장소재지권역별 예체능계열 졸업생 취업현황 :
4년제 대학 → 취업 (2014년)

(단위: 명, 행%)

			직장소재지 권역 :							
			합계	수도권	지방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 · 제주
예체능 계열 졸업 권역	합계	빈도	26,897	17,086	9,811	2,280	1,871	1,711	3,283	666
		%	100.0	63.5	36.5	8.5	7.0	6.4	12.2	2.5
	수도권	빈도	11,146	10,259	887	312	102	164	211	98
		%	100.0	92.0	8.0	2.8	0.9	1.5	1.9	0.9
	지방	빈도	15,751	6,827	8,924	1,968	1,769	1,547	3,072	568
		%	100.0	43.3	56.7	12.5	11.2	9.8	19.5	3.6
	충청권	%	100.0	65.8	34.2	29.0	2.1	0.4	0.8	1.9
	호남권	%	100.0	33.7	66.3	3.6	56.0	0.0	3.8	2.9
	대경권	%	100.0	28.7	71.3	2.0	1.3	53.1	12.7	2.2
	동남권	%	100.0	13.1	86.9	0.0	1.5	4.0	81.4	0.0
	강원 · 제주	%	100.0	66.1	33.9	2.5	0.0	0.0	0.0	31.4

27

2. 지방대 졸업자의 취업 실태

<표 Ⅲ-11> 업종별 · 권역별 인력유출입 수치 : 4년제 대학, 전문대 → 취업 (2014년)

(단위: 명)

권역		인력 유출입 수치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 · 제주
업종	합계	47,418	-25,003	-10,364	-10,585	2,576	-4,038
	A	-242	86	149	-28	83	-66
	B	0	-35	0	0	22	0
	C	7,037	-3,260	-1,374	-2,142	895	-1,126
	D	-561	56	108	207	47	125
	E	60	-71	14	19	-34	-25
	F	1,240	-625	-252	-167	111	-285
	G	4,579	-3,165	-483	-956	479	-476
	H	1,095	-463	-342	-110	-75	-85
	I	2,730	-1,748	-608	-574	298	-131
	J	4,896	-2,584	-598	-588	-496	-649

주: A.농업임업, B.광업, C.제조업, D.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E.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건설업, G.도매 및 소매업, H.운수업, I.숙박및음식점업, J.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K.금융및보험업, L.부동산및임대업, M.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N.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O.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 P.교육서비스업, Q.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R.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S.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T.국제및외국기관

28

2. 지방대 졸업자의 취업 실태

<표 Ⅲ-11> 앞의 표 연결

(단위: 명)

권역		인력 유출입 수치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제주
업종	K	1,133	-373	-297	-415	119	-143
	L	187	-165	-111	-3	51	18
	M	4,260	-2,302	-477	-792	-255	-449
	N	2,103	-1,167	-481	-350	10	-116
	O	1,095	-635	-984	-800	-177	1,512
	P	4,250	-3,149	-489	-555	390	-473
	Q	9,899	-3,617	-3,662	-2,418	1,211	-1,426
	R	1,894	-833	-328	-519	39	-260
	S	1,560	-821	-142	-428	-155	8
T	35	-106	0	47	22	0	

주: A.농업임업, B.광업, C.제조업, D.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E.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건설업, G.도매 및 소매업, H.운수업, I.숙박및음식점업, J.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K.금융및보험업, L.부동산및임대업, M.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N.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O.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 P.교육서비스업, Q.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R.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S.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T.국제및외국기관

29

2. 지방대 졸업자의 취업 실태

<표 Ⅲ-12> 직종별·권역별 인력유출입 수치 : 4년제 대학, 전문대 → 취업 (2014년)

(단위: 명)

권역		인력 유출입 수치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제주
직종	합계	47,412	-25,003	-10,340	-10,605	2,575	-4,035
	1	57	-25	-55	-81	78	0
	2	9,255	-4,886	-1,892	-1,564	-328	-564
	3	946	-400	-241	-216	58	-168
	4	2,887	-1,777	-343	-532	292	-540
	5	137	-6	-249	-107	119	76
	6	8,486	-2,433	-3,193	-2,409	986	-1,407
	7	1,834	-1,230	-524	-269	268	-93
	8	4,505	-2,890	-572	-559	-212	-302
	9	344	-154	-249	-18	100	-46
	10	4,686	-3,407	-247	-603	208	-614
	11	586	-354	-193	-172	67	45

주: 1=관리직, 2=경영/회계/사무관련직, 3=금융/보험관련직, 4=교육및연구관련직, 5=법률/경찰소방/교도관련직, 6=보건/의료관련직, 7=사회복지및종교관련직, 8=문화예술/방송관련직, 9=운전및운송관련직, 10=영업및판매관련직, 11=경비및청소관련직, 12=미용숙박관련직, 13=음식서비스관련직, 14=건설관련직, 15=기계관련직, 16=재료관련직, 17=화학관련직, 18=섬유및의복관련직, 19=전기전자관련직, 20=정보통신관련직, 21=식품가공관련직, 22=공예및생산단순직, 23=농림어업관련직

30

2. 지방대 졸업자의 취업 실태

<표 Ⅲ-12> 앞의 표 연결

(단위: 명)

지역		인력 유출입 수치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제주
직종	12	2,627	-1,319	-386	-568	-35	-328
	13	1,732	-1,317	-344	-276	217	15
	14	1,003	-644	-103	-253	235	-227
	15	857	-589	-227	-662	766	-180
	16	103	-133	-51	-66	241	-79
	17	347	-2	-155	-192	44	-68
	18	47	-25	-34	0	33	-8
	19	1,518	-437	-251	-331	-252	-223
	20	3,458	-1,663	-386	-580	-459	-383
	21	464	-231	-66	-92	19	-87
	22	622	-469	-137	-130	239	-92
	23	-132	86	111	-1	39	-75

주: 1=관리직, 2=경영/회계/사무관련직, 3=금융/보험관련직, 4=교육및연구관련직, 5=법률/경찰소방/교도관련직, 6=보건/의료관련직, 7=사회복지및종교관련직, 8=문화예술/방송관련직, 9=운전및운송관련직, 10=영업및판매관련직, 11=경비및청소관련직, 12=미용숙박관련직, 13=음식서비스관련직, 14=건설관련직, 15=기계관련직, 16=재료관련직, 17=화학관련직, 18=섬유및의복관련직, 19=전기전자관련직, 20=정보통신관련직, 21=식품가공관련직, 22=공예및생산단순직, 23=농림어업관련직

31

IV

지방대학 및 지역발전 방안

1. 추진방향

추진방향 1 : 지역의 우수 인재가 해당 지역대학에 입학하는 시스템 구축

- 지역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는 우수 인재를 그 지역이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있는가임
- 그러나 우리의 경우 우수한 지역 고교 졸업자들이 줄지어 수도권 대학으로 입학하고 있으며, 이 경향은 더욱 더 강화되고 있음
- 지역의 우수 고교 졸업자들이 해당 지역대학에 입학하게 유인하는 사업 개발·시행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지역우수 인재 확보 → 인재 양성 → 인재 활용(일자리 제공)'이 종합적으로 연계된 사업 개발 필요

33

1. 추진방향

추진방향 2 : 지역대학간 연계를 강조하는 정책 및 사업 시행

- 지역대학 정책 및 사업들이 대학간 분절에 기초하여 실시된 측면이 강함
- 물론 지난 수십년동안의 지역대학에 대한 사업들 중 대학간 연계를 강조한 사업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매우 예외적이었음
- 대학간 연계를 필수화하는 정책 및 사업은 독립성, 자율성이 강한 조직이라는 대학 특성으로 인해 시행하기 쉽지 않지만, 연계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함

34

1. 추진방향

추진방향 3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대학 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하는 구조 구축

- 초중등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책무성에 비해 지역대학에 대해서는 매우 부족하였음
- 지역내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는 점에서 지역대학 정책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권장, 보장하도록 하고, 책무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매칭 펀드도 부담하도록 함

35

1. 추진방향

추진방향 4 : 세계적 수준의 지역대학 육성이라는 목표를 가진 '선택과 집중'사업 시행

-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약간의 개선에 초점을 두는 사업으로는 현재의 지역대학의 위기,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움
- 지역에 세계적 수준의 대학을 육성시킴으로써 지역발전과 인근 지역대학 발전을 선도하는 사업 시행이 필요함

36

2. 추진사업

(가칭) '지역미래인재 트리플-윈(triple-win)' 사업

- 일정 성적(혹은 능력) 이상의 지역 우수 고교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대학 입학시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 지원, 지역내 좋은 일자리 제공 등 획기적인 지원책을 담은 사업임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참여 대학이 재원을 투입하고, 지역대학과 지역내 공공기관등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간에 미래인재 장학생 채용약정을 위한 MOU 체결을 필수화함으로써 우수한 지역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대학에 입학하고 졸업 후에도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임
- 청년 고용난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과 같이 구태여 고향을 떠나 수도권대학으로 입학해서 고생활비를 부담했지만 좋은 일자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 사업의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되며, 우수 인재-지역대학-지역 좋은 일자리 확보 기관(기업) 모두가 윈(win)하는 사업임

37

2. 추진사업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할당제

-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지방대학육성법은 공공기관 및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이 대졸 신규 채용인원의 35%를 지역인재로 채용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화하고 있음
- 그러나 이 조항은 강제조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라는 점에서 법 취지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음
- 지역대학의 발전과 지역발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지방대학육성법 관련 조항의 내용을 개정하여, 현재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채용 권고제를 채용 의무제로 전환시키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음

38

2. 추진사업

세계적 수준의 지역대학 육성 사업

- 지역에도 한국의 최상위 대학 수준의 대학들이 존재하여야 지역도 발전하고 인근 대학들의 발전도 선도할 수 있음
- 우수 인재의 확보, 질 높은 인력양성, 좋은 곳으로의 인력활용, 우수 연구물의 생산과 견실한 산학협력 등을 통해 지역발전과 대학발전을 선도하는 (가칭)지역중핵대학창출사업' 신설이 필요함
- 지역중핵대학은 세계적·전국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거나 갖출 것으로 전망되는 대학이어야 하며, 대규모 대학이 될 수도 있고, 중소형 강소대학이 될 수도 있으며, 획기적인 대규모 지원 금액과 맞물려 책무감을 분명히 주어야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음

39



토론문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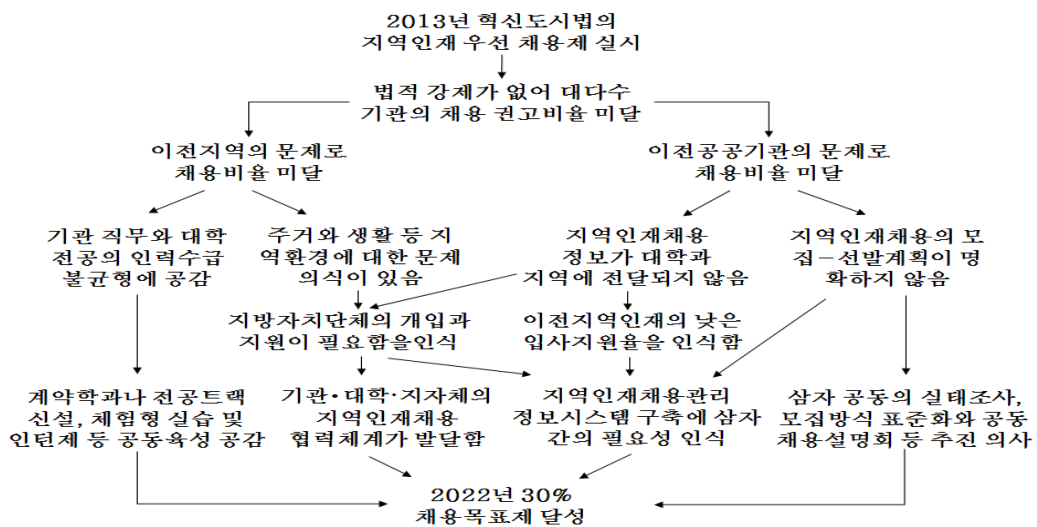
지역인재, 지방대학 그리고 지역산업의 트라이앵글



임경수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교수)

□ 3각축의 단절 : 블랙박스의 보이지 않는 문제들

- 류장수 교수님이 꾸준히 진행해 온 지방인재 유출의 실증적 연구는 지방대학과 지역인재 육성, 지역인재 채용할당제 도입 등 실질적 정책제안이 되었고, 관련 정책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근거가 되었음
- 토론자는 2017년 혁신도시 이전지역인재 채용확대 정책을 연구하면서 이론기반평가의 논리모형을 이용해 지역인재 채용문제에 관한 블랙박스를 열어보고자 하였음
- 그 결과 지역발전의 3각축을 이루어야 할 지역인재, 지방대학 그리고 지역산업이 단절되는 원인은 지역 자체의 문제와 지역이전기관의 문제에 있음을 알게 되었음
- 이를 Weiss(1997)의 프로그램 이론에 근거하여 제시해 보면 아래 그림과 같음



[그림 1] 혁신도시의 지역인재와 공공기관 채용의 연계 논리모형

□ 3각축의 단절이 가져오는 지역불균형과 지역 간 격차

- 지금까지는 수도권과 대립되는 관점의 비교이론적 접근과 지방을 총체적으로 고찰하는 일원론적 접근이 지배적이나,
- 지역인재 문제는 지역마다 활동주체들의 사고와 행동, 주체들 간의 관계, 지역특성과 제도 등이 달라 다원론적이고, 그에 따라 다양한 요인들을 논리적으로 연계해서 보아야 함
- 일례로 토론자의 혁신도시 지역인재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지역 간 분리와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었음(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집단 간 차이가 있음의 유의확률은 .01)

<표 1> 혁신도시 이전지역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동일집단군

혁신도시		N	유의수준 = 0.05에 대한 부분집합		
			1	2	
Tukey HSD _{a,b}	울산	7	4.620%		
	충북	7	4.718%		
	강원	9	6.311%		
	전북	4	9.581%	9.581%	
	경남	8	11.593%	11.593%	
	광주전남	11	15.546%	15.546%	
	부산	9	16.402%	16.402%	
	대구	9	23.243%	23.243%	
	경북	6		31.058%	
	유의확률			.250	.112

- a. 조화평균 표본크기 7.191을 사용
- b. 집단 크기가 동일하지 않아 집단 크기의 조화평균이 사용됨

□ 지역내부의 단절 현상에 초점을 맞춘 지역별 원인 진단 필요

- 동일한 법률, 제도, 지침 등의 정책 신호임에도 지역별로 노력하는 정도가 다르고, 실행방법도 다르며, 당연히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남
- 예를 들어 대구의 경우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으로 지역이전기관과 지방대학들이 꾸준히 협의하며 공동채용박람회, 현장인턴십 등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충북의 경우 기관들은 지역인재 지원비율 자체가 낮다고 하

고, 대학들은 기관들이 채용정보를 골고루 나눠주지 않는다고 함

- 또한 류장수 교수님의 발표자료에서 보듯 수도권에 인접한 충청도와 강원도는 대학 재학생의 상당수가 수도권 고교 출신이고, 졸업 후에 수도권으로 회귀하는 경향, 즉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라 지역인재의 지역 수용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함

□ 지방대육성법과 혁신도시법의 기반 강화와 함께 지역별 인재-대학-산업의 트라이앵글 피트 시스템 구축

가. 지방대육성법 관련

- 2014년 법 제정 이후 2015년 기본계획 수립, 육성지원위원회 구성 및 개최, 이후 연간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 등 절차적 긍정성
- 2017년의 경우 관련 재정지원 규모는 3조 1,521억원으로 전년 대비 10.7% 증가, 10개 중앙부처와 14개 시·도에서 모두 649개 사업 추진
- 그러나 여전히 중앙정부 주도의 사업으로 국비 2조 7,302억원 대비 지방비는 3,425억원 수준(전년 대비 28.5% 상승은 긍정적)
- 육성지원위원회 안건은 대부분 교육부 안건으로 2016년까지 대면회의(2회), 서면회의(5회) 등을 합쳐 총 15개 안건 중 교육부 안건이 13건, 고용부 1건, 미래부 1부 등이었음
- 앞서 설명했듯 지역인재 문제는 지역특수성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 지역 스스로의 문제해결역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지역의 대학-산업-지자체 협의회 강화, 인재정보전달체계 구축, 행재정적 지원, 지역인재육성 및 채용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함

나. 혁신도시법 관련

- 2007년 혁신도시법 제정 이후 지방 이전지역의 효과로 인적자원개발 논의 활성화
- 2013년 개정에 따라 지역인재 우선 채용 권고의 조항이 명시되었고, 이로 인해 이전기관들이 지역인재를 비수도권인재와 이전지역인재로 구분

하여 채용(실제 구분하여 공고한 비율은 2015년 ~ 2017년 상반기 잡알리오 기준으로 60.4%)

- 그러나 이전지역인재 채용비율은 2014년 10.2% → 2015년 12.4% → 2016년 13.3% 등 크게 호전되지는 않았음(국토교통부, 2017)
- 2017년 혁신도시법 개정으로 시행령에 채용목표제를 명시함으로써 2018년 18%에서 매년 3%씩 증가, 2022년부터 30%를 유지해야 함
-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관의 채용제도 혁신, 대학의 지역취업 강화, 지역인재의 지역인식 전환 등과 함께 지자체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됨
- 아울러 지역별로 대학-인재-산업이 연계되는 계약학과 신설, 융복합 전공 트랙, 지자체의 주거환경 지원 등 혁신도시가 지역인재 육성과 채용의 혁신지역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함

토론문 2

지방대학-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제언



신기왕 (울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 부원장)

- 발제자는 지역의 우수 고졸자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면서 지역 우수 인재들의 1차 유출이 발생하고, 수도권 대학으로의 편입을 통해 그리고 지역대학 졸업 후 수도권 지역의 직장으로 2차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지역대학의 졸업 후 취업성과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 제시하였음. 개선 방안으로
 - 지역의 우수 인재가 해당 지역대학에 입학하는 시스템 구축
 - 지역대학간 연계를 강조하는 정책 및 사업 시행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대학 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하는 구조 구축
 - 세계적 수준의 지역대학 육성이라는 목표를 가진 ‘선택과 집중’ 사업 시행을 제시하였음. 발제자의 문제의식과 개선방안에 동의하면서도 몇 가지 점을 지적하면 첫째, 지방대학의 문제 중의 하나로 지역의 우수 인재를 선발하지 못하는 데 두고 재정적 지원 방식으로 유인하는 사업을 제시하였으나 지방대학의 육성은 기본적으로 우수 학생 선발 보다는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에 있다고 할 수 있음. 또한 학생의 대학 선택은 대학 간의 경쟁을 통해 이루어져야하며 타 지역 대학과의 형평성별 논란을 야기할 수 있음. 둘째, 지방대학의 취업 실태 대한 분석적 접근이 필요했다는 점이 아쉬웠으며 대학 간 연계 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음. 주제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와 지역인재 육성의 큰 틀에서 몇 가지 정책 제언을 하고자함.

- 첫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중심이 되어 지역인재 수요조사와 같은 보다 구체적이고 활용성 있는 지역별 조사를 통하여 정책의 기초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의 일반적인 직종별, 업종별 분류 형태보다 세분화된 인적자원 분류를

- 기초로 지역인재의 수요자 관점에서 현황파악을 위한 전수 조사가 필요함
- 이러한 조사를 위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조사방법과 조사지를 개발하고 지역별 조사를 지원하는 형태로 실시하여 각 지역의 조사 결과가 국가 전체로 통합되는 방식을 제안함

○ 둘째, 지방대학-지역인재 육성 정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한 지역별 컨트롤 타워를 만들 필요가 있음.

- 현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과 관련한 추진체계는 중앙정부, 지자체, 지방대학, 연구기관과 연계하도록 하여 현재 협의체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할 컨트롤 타워가 없어 실효성이 없음.
- 지역의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과 관련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위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정점으로 지역의 기획, 조정,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센터를 설치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함

○ 셋째, 평생교육에서 성인의 비형식으로 수행되는 직업능력교육을 직업교육과 통합하여 체계화할 필요성이 있음

- 25세 이상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 조사에서 형식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은 0.4%(35세 이상은 0%)인 반면에 비형식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은 27.5%로 나타났음
- 영역별 참여율은 직업능력 향상 교육이 1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문화예술 스포츠교육(10.1%), 인문교양교육(3.1%) 순임. 또한 비형식교육의 참여 목적을 살펴보면, 직업과 관련된 목적이 43.8%, 직업과 무관한 목적이 56.2%로 나타났음
- 일정 장소에서 강사가 강의하는 강좌가 7.2 %로 직장 내 직무 연수 프로그램(12.5 %)보다는 낮지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17년 울산 성인평생학습 실태조사 (울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

- 조사기간 : 2017. 7. 1~ 9. 15.
- 조사대상 : 울산시에 거주하는 만 25세 이상 79세 이하 시민
- 조사표본 : 631명(확률비례추출)

〈표 1〉 울산의 연령, 학력, 경제활동 상태, 소득 별 평생학습 참여율

(단위 : %)

구 분		전체 참여율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직업관련)
전 체		27.8	0.7	27.5	12.9
연령별	25~34세	32.8	3.9	30.9	17.2
	35~44세	29.8	0.0	29.8	18.9
	45~54세	28.8	0.0	28.8	12.3
	55~64세	24.7	0.0	24.7	8.6
	65~79세	18.8	0.0	18.8	2.6
학력별	중졸 이하	18.9	0.0	18.9	2.8
	고졸(대학 재학, 중퇴 포함)	22.5	0.7	21.8	9.6
	대졸 이상	40.6	1.1	40.6	22.9
경제활동 상태	취업	28.1	0.3	28.1	18.6
	실업	36.3	5.8	36.3	11.0
	비경활	26.6	1.1	25.5	1.9
월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25.4	0.0	25.4	0.0
	150~300만원 미만	22.7	0.0	22.7	7.4
	300~500만원 미만	26.9	0.6	26.9	13.3
	500만원 이상	33.6	1.5	32.1	17.5
고용형태	임금근로자(정규직)	38.2	0.5	38.2	27.5
	임금근로자(비정규직)	11.8	0.0	11.8	7.3
	비임금근로자	14.5	0.0	14.5	5.9

〈표 2〉 프로그램 영역별 평생학습 참여율

(단위 : %)

구 분		학력보완 교육	성인기초 및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 교육	문화예술스 포츠 교육	시민참여 교육
전 체		0.2	0.3	14.0	3.1	10.1	0.5
연령별	25~34세	0.0	0.0	19.0	3.7	10.1	0.0
	35~44세	0.7	0.0	20.3	2.2	5.9	0.7
	45~54세	0.0	0.6	13.6	2.4	12.2	0.0
	55~64세	0.0	0.0	9.3	3.9	11.4	0.8
	65~79세	0.0	1.1	2.6	3.7	11.5	1.3
학력별	중졸 이하	1.1	0.8	2.8	1.7	12.5	0.0
	고졸(대학 재학, 중퇴 포함)	0.0	0.3	9.8	2.9	8.7	0.9
	대졸 이상	0.0	0.0	26.0	4.0	11.1	0.0
경제활 동상태	취업	0.3	0.0	20.0	1.4	6.4	0.5
	실업	0.0	0.0	11.0	11.0	20.0	0.0
	비경활	0.0	0.9	2.8	5.5	16.2	0.5
월 가구소 득	150만원 미만	0.0	3.0	3.3	9.9	16.1	0.0
	150~300만원 미만	0.0	1.1	7.4	3.0	11.3	0.0
	300~500만원 미만	0.3	0.0	14.5	2.0	9.9	0.8
	500만원 이상	0.0	0.0	18.9	4.4	8.8	0.0

〈표 3〉 비형식교육 참여 목적

(단위 : %)

구 분		전체 (직업과 관련)	취업, 이직, 창업에 도움	일하는데 필요한 기능 습득	고용안정	전체 (직업과 무관)
전 체		43.8	3.2	39.6	1.1	56.2
성별	남자	66.5	3.2	62.4	1.0	33.5
	여자	17.9	3.2	13.5	1.1	82.1
연령별	25~34세	51.8	7.1	42.5	2.2	48.2
	35~44세	60.3	4.7	55.6	0.0	39.7
	45~54세	40.6	0.0	40.6	0.0	59.4
	55~64세	32.4	2.4	27.0	3.0	67.6
	65~79세	10.9	0.0	10.9	0.0	89.1
학력별	중졸 이하	14.3	4.3	10.0	0.0	85.7
	고졸(대학 재학 중퇴 포함)	39.2	0.0	37.8	1.3	60.8
	대졸 이상	53.5	5.5	46.9	1.1	46.5
경제활동 상태	취업	63.0	1.7	59.7	1.6	37.0
	실업	26.2	26.2	0.0	0.0	73.8
	비경활	6.4	3.1	3.2	0.0	93.6
월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0.0	0.0	0.0	0.0	100.0
	150~300만원 미만	30.3	8.5	21.8	0.0	69.7
	300~500만원 미만	47.6	3.0	42.6	1.9	52.4
	500만원 이상	50.2	1.9	48.3	0.0	49.8

〈표 4〉 비형식교육 참여유형

(단위 : %)

구 분		일정 장소에서 강사 강의하는 강좌	직장 내 직무 연수 프로그램	원격/ 사이버 강좌 수강	전문적인 세미나 및 워크숍	학습 동아리	기타 강좌 및 개인교습
전 체		7.2	12.5	0.3	0.7	0.0	7.4
연령별	25~34세	7.2	16.3	1.0	1.9	0.0	7.4
	35~44세	5.1	18.9	0.0	0.0	0.0	5.9
	45~54세	4.3	12.3	0.6	1.2	0.0	10.4
	55~64세	9.4	7.8	0.0	0.0	0.0	8.1
	65~79세	13.9	2.6	0.0	0.0	0.0	2.4
학력별	중졸 이하	10.6	2.8	0.0	0.0	0.0	5.5
	고졸(대학 재학 중퇴 포함)	5.3	8.3	0.7	0.6	0.0	7.5
	대졸 이상	8.5	23.9	0.0	1.1	0.0	8.2
경제활동 동상태	취업	3.7	18.9	0.0	1.0	0.0	5.2
	실업	25.9	0.0	0.0	0.0	0.0	10.4
	비경활	12.1	1.4	1.0	0.0	0.0	11.4
월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19.1	0.0	0.0	0.0	0.0	6.3
	150~300만원 미만	11.5	7.4	0.0	0.0	0.0	3.8
	300~500만원 미만	5.3	13.3	0.6	0.6	0.0	8.2
	500만원 이상	6.7	16.2	0.0	1.4	0.0	7.9

토론문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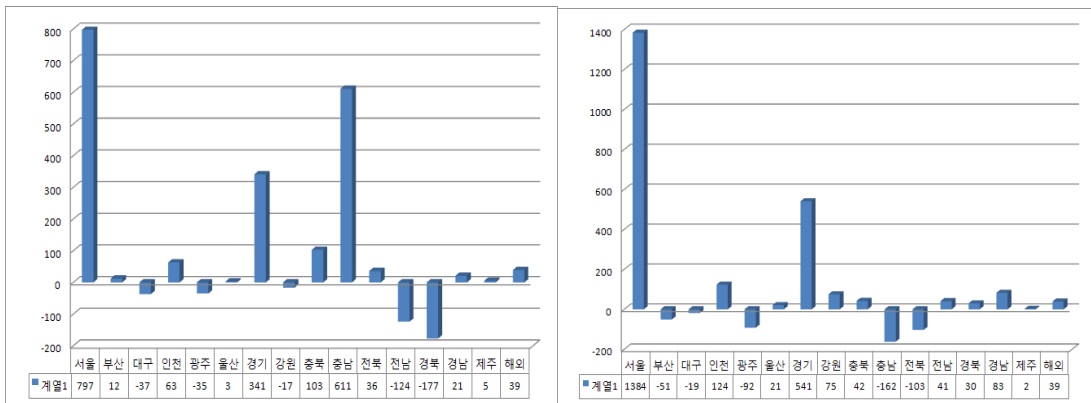
대전시 지역인재유출 실태와 지역내 인재육성 및 활용 지원방안

박노동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1. 인재유출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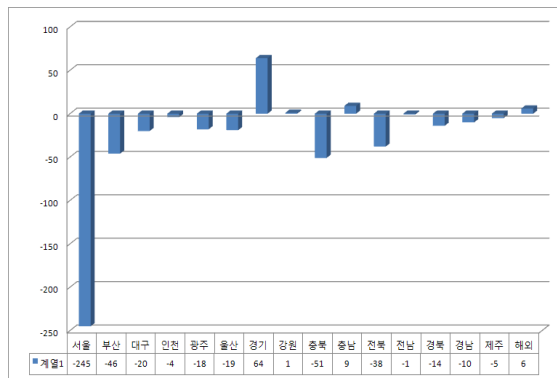
○ 대전지역 인재 유출-유입 구조의 특성

- 전문대 졸업자(대전 7,097명)의 유출-유입: 유출(2,907명) - 유입(1,266명) = 1,641명
- 4년제 대학교 졸업자의 유출-유입: 유출(4,107명) - 유입(2,152명) = 1,955명
- 대학원 졸업자의 유출-유입: 유출(513명) - 유입(904명) = -391명



대전지역 전문대졸자 신규 취업에 의한 순유출자 수

대전지역 대학교졸업자 신규 취업에 의한 순유출자 수



대학원졸업자 신규 취업에 의한 순유출자 수

- 발표문에서도 언급되었듯, 대전은 전문대 졸업자 유출률이 37.6%, 유입률은 20.5%, 4년제 대학졸업자의 유출률은 51.9%, 유입률은 30.4%에 달하여, 타지역 인력 유출이 타시도에 비하여서도 아주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지역대학졸업자들의 지역노동시장 잔류율이 낮은 것은 한편으로는 지역의 우수한 인력이 보다 좋은 일자리를 찾아 역외로 이동하는 이른바 두뇌유출 (brain drain) 혹은 인재유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의 청년층 노동시장이 초과공급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
 - 결과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은 우수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 받을 수 없는 지역으로는 이동하지 않을 것이고 양질의 일자리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에는 우수한 인재가 유입되지 않는 악순환이 야기

- 산업기술인력 수급실태조사(2016)결과, 인력수요 차원에서 대전은 바이오헬스, 섬유, 반도체, 자동차, 철강, 소프트웨어 산업의 전문학사/학사급 인력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의 인력유출이 인력수급 미스매칭 발생에 구조적 원인인 것으로 파악됨

- 유출의 일부 원인으로 제기된 인적자원개발체계와 취업지원체계의 연계 결여의 문제, 인적자원개발의 단절화된 체계, 취업정보 구축의 부조화, 청년 무업층 (NEET)에 대한 대책의 부재 등에 대하여 정책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2. 지역내 인재육성 및 활용 지원방향 및 방안

- 지역사회와 대학 연계 지원을 통한 지자체 역할 강화
 - 지역내 인적자원개발 및 고용정책 컨트롤 타워 운영
 - 2015년 기준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정부가 시행 중인 고용정책(프로그램)만 298개가 있으나 중구난방식 비효율적 시행. 지역고용정책은 지역산업정책과 인적자원개발정책, 일자리창출정책 등이 통합적 시각에서 운영되어야하므로 대학, 유관기관, 단체 등의 네트워크 구축과 기능 조정, 협력 필요
 - 산·학·연 협력사업을 위한 대학 지원 사업 효과적 추진
 - 기업 필요 애로기술에 대한 공동연구개발, 전문인력양성, 기술이전 및 산업화 등에 지역대학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토록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 강화

○ 지역 인재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실질적 지원 대책

- 지역기업의 수요중심 필요인력 양성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 Job Bank 및 Work-net 운영. 대전광역시 및 충청권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동시장기구의 정보를 수합하여 지역대학에게 제공하는 정보채널로 운용하며, 구인, 구직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게 하고, 구직의 요건과 자격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함
 - 지역기업 맞춤형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며 지원. 기업체의 직무수행에 즉시 투입 가능한 수요중심형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 기업체와 대학이 협약으로 학과신설 등 대학교육의 현장적합성을 제고하며, 기업의 취업예약 장학금 등 인재를 유입하는 여건 조성. 이와 함께 기업체의 직무수행에 즉시 투입 가능한 수요중심형 인재양성을 위해 기업체와 대학이 협약으로 학과신설 등 대학교육의 현장적합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취업예약 장학금” 등 인재를 유입하는 여건을 조성
- 대전시 (가칭)인재 양성 및 활용 플랫폼 구축
 - 우리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중 우수한 학생의 지역외 유출을 최소화하고, 타 지역 또는 외국의 우수 학생들을 대전 지역 대학에 많이 유치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 이를 위해서는 대전지역 대학들이 좋은 시설과 우수한 교수진, 그리고 선진화된 각종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 지역 대학에 대한 대전지역 대학들의 우수성, 발전 가능성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해외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제도와 인프라 구축 적극 추진
 - 우수한 학생들을 받아들인 대학은 이들을 지역의 산업체와 연구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는 것이 두 번째 과제. 이를 위해 대전 지역의 대학이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요약. 첫째는 대덕 R&D특구의 출범과 더불어 대전 지역 대학들은 과학기술·연구개발 분야와 첨단문화 분야만큼은 한국에서 최고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역대학 공동의 특성화를 기하여, 타지역 또는 외국의 우수 학생이나 연구기관까지도 유치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며, 두번째는 대학-연구기관-산업체-지자체로 구성되는 산·학·연·관 클러스터가 전국에서 가장 잘 이루어지는 모델을 만드는데 지역 대학이 모두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 대학에서 배출되는 우수인재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이들이 대전의 산업체와 연구기관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 번째 과제.

- 지역대학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지역대학생 채용우수 지역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노력 필요
- 대전의 여건을 감안하여 대학생 창업동아리 지원을 확대하고 창업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좀더 활성화. 대학생의 창업활동 유도를 통하여 대학생의 취업기회를 증진하는 한편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토록 지원을 확대. ‘청년창업프로젝트 500’ 사업을 활성화하여 청년창업환경이 가장 우수한 도시의 면모를 갖추도록 하는 노력 필요

○ 정책수요자 중심의 지원 체계 구축

- 자율적 문제해결 능력 고취 방안

- 지역에서 배출된 인재에게 지역에 대한 관심과 지역발전의 동기를 적극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가칭) 대전청년혁신 플랫폼을 청년 중심으로 구축하여, 최대한 자율적 운영을 보장, 재정 및 물리적 지원 강구
-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고리 모델을 청년혁신 플랫폼으로 활용

- 청년혁신 플랫폼 기반 청년창업환경 조성 지원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